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파주시청소년재단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PCYF-2021-01-001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파주시청소년재단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파주시청소년재단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 행사개요

사업명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주 제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일 시	2021년 10월 21일(목) 10:00~12:00
장 소	온라인(ZOOM),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진행방식	온라인(ZOOM)을 통한 실시간 중계
대 상	파주시 관내 청소년 관련 종사자
주요내용	(기조발제)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과 청소년재단의 역할 (발제) 활동, 미디어, 문화예술, 참여, 상담 분야별 주제 발제 (토론) 종합 토론
주 최	파주시
주 관	파주시청소년재단

## 세부일정

시간		내용	비고
10:00~10:10	10'	<b>[개회식]</b> - 개회사 및 인사말 - 행사안내 및 참석자 소개	<b>좌장</b> <b>김진호</b> (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10:10~10:30	20'	<b>[기조발제]</b>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과 청소년재단의 역할 권일남(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10:30~11:30	60'	<b>[발제1]</b> 청소년 상담 - 한결같은 걸음, 행복한 청소년 상담 현선미(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b>[발제2]</b> 청소년 활동 -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을 위한 제언 유성렬(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b>[발제3]</b> 청소년 미디어 - 청소년들이 미디어로 만드는 살고 싶은 파주 김양은(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 <b>[발제4]</b> 청소년 참여 - 파주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한도희(청파청소년연구원 원장) <b>[발제5]</b> 청소년 문화·예술 -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김인설(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11:30~11:50	2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1:50~12:00	10'	마무리	
			<b>사회</b> <b>나기숙</b> (파주시청소년재단 문산청소년문화의집 관장)

# 목차

## 기조발제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와 청소년재단의 역할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발제1

### 청소년 상담

### 한결같은 걸음, 행복한 청소년 상담

현선미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발제2

### 청소년 활동

###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을 위한 제언

유성렬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발제3

### 청소년 미디어

### 청소년들이 미디어로 만드는 살고 싶은 파주

김양은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

## 발제4

### 청소년 참여

### 파주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한도희 (청파청소년연구원 원장)

## 발제5

### 청소년 문화·예술

###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기조발제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와 청소년재단의 역할**

권일남 (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와 청소년재단의 역할

권일남(명지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 교수)

### 1. 청소년의 행복한 삶 그리고 활동의 필요성

인간의 행복에 대한 욕구와 욕망은 때론 원초적인 것이기에 부족하다고 여길 경우 각종 자신만의 방법으로 이를 채우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게 된다. 특히 인간은 신체적 욕구나 안전의 욕구를 바탕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건강한 기대라든지 그 이상의 어떠한 이상의 실현을 위한 단계적 발판을 마련하려는 기대감이 있기에 자신만의 목표달성을 위한 행동을 추구하게 된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의 의미에는 자신의 성취적 태도와 함께 자신을 중심으로 한 범주 속에서 살고자 하는 기대감이 분명 존재하고 이를 충족해 나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갖는 삶의 기대감을 실현하는 그 자체는 마치 행복을 위해서 나가는 행위라고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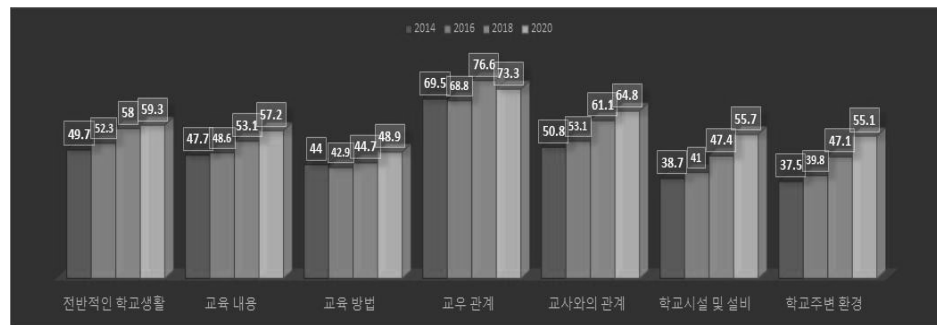
인간의 성장이라는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는 전 생애 중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격정적인 변화를 수반하기 위한 시기이지만 동시에 서로 긍정적 기대와 부정적 규제의 관점이 서로 교차 되는 일을 자주 발견하게 된다.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장과 성숙의 교차점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시기를 살아가는 청소년이기에 서로가 느끼는 행복의 관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들의 행복은 일시적이기도 하며 단순한 형태나 수준의 것에 만족함을 표방하기도 하는 등 성인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띠다고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내는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많은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음을 볼 때 일정 부분 안타까운 점은 분명해 보인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학생들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만족도’, ‘교육내용 만족도’, 그리고 ‘전반적인 학교생활 만족도’는 모두 전체 학생의 50% 이상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21:367). 하지만 이를 되짚어 보면 학교생활이 즐겁고 희망찬 곳이 되어야 함에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만족함(2020년 보통이 36.3% 수준을 차지함)보다는 ‘보통수준’에서 ‘그저 그런 상태’임을 보여 생활 자체에 만족감을 보인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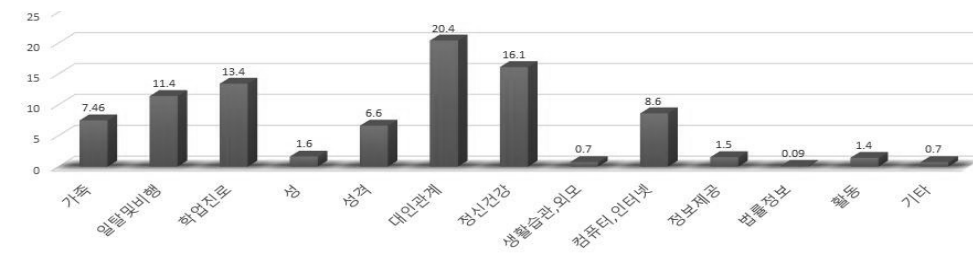
세부적으로 교육내용과 방법, 교사와의 관계, 시설과 설비 및 환경 등에서도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판단이 일부 있음은 긍정성이 높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삶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다른 관점에서의 대책이 시급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1] 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도 비교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각 년도 수정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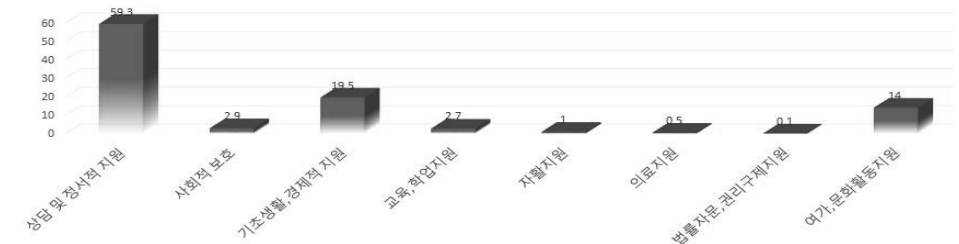
하지만 최근의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학교의 문제보다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은 학교와 가정의 이분법적 접근의 범주를 넘어서 생활환경의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동시에 청소년 스스로도 환경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고민거리가 급증한다거나, 친구나 주변 관계인과의 대치 곤란 등은 특별하게도 청소년 시기에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민거리([그림2])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으로서의 대책이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그림2] 2019년 시도 및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문제유형별 상담실적  
자료 : 청소년백서, 2021:240.

이외에도 [그림3]처럼 위기 청소년들의 안전망 이용실태에 따른 대응방안을 제시한 결과를 보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법으로서의 고려할 점이 무엇인가를 판단해 보게 하는 근거가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그림3] 청소년안전망 지원서비스 이용내용  
자료 : 청소년백서, 2021:243.

비록 위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안이기는 하나 청소년들이 나름 심리적 고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이고 또한 해결책으로서 제시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청소년기에 심리적 고충이 극심한 이들이 갖는 관계적 어려움이 이들의 행복을 저해하고 안정적 삶을 지탱하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는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심리상담이나 직접적인 대인관계적 서비스를 원하고 있었으며, 대안적 관점으로 여가 문화활동 지원을 통한 안정화 대책은 매우 의미 있는 방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로 대두되는 다른 요인으로서는 사회적 변혁의 일환으로는 부각된 4차산업혁명과 같은 큰 조류일 것이다. 그동안 4차산업혁명이라는 점을 주로 기술적 혁신으로 받아들였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지만 실제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사회혁신의 의미는 내면적으로는 소통과 융합, 연결이라는 핵심의미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 이를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의 압력 또한 거세게 받고 있다는 점이다.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빅데이터와 공유경제라는 의미이다. 어제와 달리 지금 그리고 미래의 세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세상 저편에서 발생한 일들이 나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일이 급박하게 나타나기도 한다<sup>1)</sup>.

1) 코로나 19로 인한 세상의 연결이 하나임을 직감하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적 공동체라는 말이 성립될 정도로 특정 국가에서의 어려움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서 갈라파고스적인 삶을 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회혁신과 변화가 우리 청소년에게는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며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은 어느 정도로 부각되고 있을까? 과거에 그래왔던 것처럼 한 가지만 잘해도 세상에 역할이 있을 거라던 외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던 무리도 그것의 허상과 문제를 지각하여 모든 것을 잘해야 하고 그중 하나를 더 특출나게 잘해야 하는 세상임을 깨닫고 있기에 준비가 부족하면 결국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모두를 지배하고 있음이다<sup>2)</sup>.

지금의 세상이 흘러가는 구조 속에서 어느 하나 청소년들에게 공감의 되며 학습의 조건을 충족시켜줄 만한 것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러한 기준을 세울 토대가 잘 보이지 않음은 잘못된 생각일까? 아마도 지금의 청소년들은 세상의 흐름과 삶의 진리를 일찍이 깨달아 가서 무엇이 옳고 그름 정도는 이미 알고 있는 이들이 아닐까 감히 말해 본다.

몇 년 전만 해도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함이 가장 바른 길이며 건강한 인성을 함양하고 자발적인 기대치를 소유하도록 함이 가능했었다면 작금의 여러 지표는 그러한 기준을 세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쉽게 보여준다. 정보의 획일적 시대를 살았던 이들에게는 익숙하였지만, 지금은 유튜브나 각종 독립적 정보 원천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정보만을 선택적으로 듣고자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 어느 정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정보나 사실들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만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은 얼마든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코로나 19로 인해 활동의 저변이 약해지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은 지금껏 다른 형태의 활동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으로 연계됨에 따라 부족한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 중시해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기에 앞으로의 청소년들에게 전하려는 다양한 형식과 방법론으로서의 청소년활동 역시 큰 변화를 해야 함은 물론이고 그러한 변화를 주도하는 기능이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발견될 수 있도록 해야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한 발짝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논해 본다.

2) 모두를 지배하는 잘하는 사람의 기대감을 가져야 함을 사고력에는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단기적 경주가 아님에도 특정 시기를 단거리에 비교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무너져 내리게 하는 행태를 많이 본다. 교육하는 학교가 사람을 위해 애쓰는 곳이어야 함에도 경쟁을 당연시 여기는 단거리 경주장으로 바뀐 현실을 깨닫고 변화를 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섰으면 하는 새로운 기대를 만들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 2. 파주시 청소년의 행복을 지원하는 청소년활동수준의 현실

청소년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에는 수많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될 것이다.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는 아픔을 받아주고 치료하는 형식에서 경제적 독립과 복지적 지원을 강화하여 생존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차원, 더 나아가서 잠재적 역량과 능력을 보완하여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하는 방법 등 다양성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파주시가 지향하는 행복의 시정 의미에 대한 시민의 인식이 확립되어 있다는 점과 자연, 문화, 평화와 같은 의미가 현재 파주시가 처해 있는 접적 지역으로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 맥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누구나 생각하는 보편적 의미에 대한 행복은 수용하지만 이를 청소년에게 어떻게 녹여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행복, 자연, 문화, 평화 등의 의미가 분리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고 보며 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지는 청소년 정책 역시 청소년에게는 순간적으로 불안한 감정의 정리는 물론 자발적이고 자신의 주도적 능력에 따라서 숨겨져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점을 청소년 정책의 핵심 화두로 삼고 비전과 연계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은 매우 시급하다.

청소년의 위기적 상황을 대처하도록 하는 방법에는 심리, 상담, 보호, 복지 등 수많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 중 예방적 차원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내도록 청소년에게 가장 각광을 받는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청소년활동일 것이다. 이는 앞서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실제적 행동 개선과 긍정적 적응력을 키우는데 청소년활동이 상당 부분 서비스 지원으로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서 볼 때 일반 청소년에게도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명시해 볼 수 있다.

특히 파주시가 청소년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 청소년재단의 출범을 해 왔고 새로운 전략적 흐름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활동을 토대로 발전 방향을 논의해 보고자 한다.

파주시가 청소년재단을 출범시키면서 얻고자 하는 성과로는 지금껏 해 왔던 청소년활동의 범주에 전혀 다른 색깔을 덧입히고자 하는 기대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로는 최초 대표이사의 선임에 대해서도 청소년 분야 최고 전문가를 영입하여 전체의 골격을 짜고 운영하는 점이 잘 설명해 주고 있다고 보여진다<sup>3)</sup>. 그래서 향후 청소년재단운영의 낙관성을 기대하면서도 재단운영의 돌탑을 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에 많은 곳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 강한 소명감으로 점철되어진 모두의 노력이 하나가 되도록 모두가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3) 재단연구를 하면서 주장한 대표이사의 선임에 청소년전문가를 등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대해 청소년전문가가 대표로 선임된 현재의 파주시청소년재단을 보면서 재단운영에 대한 긍정성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감히 말해 볼 수 있다.



사실 파주의 청소년활동여건은 재단설립에 대한 연구기초를 통해 기반을 닦은 연구자의 입장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그다지 낙관적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러한 이유로는 파주시의 청소년 정책 환경과 지원 등 모든 부문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의 독립적 지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거나 또는 다른 관점에서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능동적 기틀을 제시하고 완성해 나가는 토대를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었기 때문이다. 비록 1년 전의 상황 이기는 하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연구 과정에서 보였기에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보며 몇 가지 논의를 적시해 보았다.

첫째, 청소년 정책의 독자적 차별성의 결여를 들 수 있다. 중앙정부가 마련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이 있다면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지역에 걸맞는 독자적 청소년 정책을 특성화하는 방안이 매우 중요하다. 즉 현재의 청소년 정책에서 추구하는 관점이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어떠한 점을 강조해 주어야 할 것인가의 발굴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파주시 차원의 독립적인 정책이 그다지 선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역 수준에 맞는 실용적 청소년 정책의 바탕이 매우 약한 모양새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둘째, 청소년 정책의 실현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예산과 행정적 지원의 낮은 점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파주시의 청소년 정책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대비 약 0.29% 수준(연구수행 당시)에 머물고 있어서 청소년 예산 규모가 미흡한 상황으로 인근 고양시나 의정부시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매우 취약하게 보였다<sup>4)</sup>. 또한, 청소년 정책예산 규모 중 청소년 1인당 사업비의 규모가 파주시의 경우 44.9천 원으로 고양시 54.6천 원, 의정부시 121.7천 원과 비교해 볼 때 매우 저조하다고 말할 수 있었다<sup>5)</sup>. 그리고 파주시가 의정부시보다 큰 재정 상황을 갖춘 기초지방자치단체임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정책예산의 투자는 미흡해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이기는 하나 부족한 예산을 충족하려는 나름의 노력을 위해 애쓰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기도 하였다.

셋째, 청소년시설의 불균형성에서 오는 활동서비스 제공의 터전이 매우 취약하였다. 그동안 파주시의 청소년시설은 타 지역과 비교해 볼 때 가장 중추적인 청소년수련관의 건립이 늦은 상황이었다. 그러다 보니 파주시의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문화의집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으며 그 운영도 민간주도형태이다 보니 전체를 하나로 묶고 통합하여 파주시의 청소년정책에 맞춰 운

영하려는 여지가 매우 낮았었다. 결국, 이미 고착화된 청소년문화의집 중심 시설운영과 이와 동등한 수준에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은 파주시 전역의 청소년활동과 상담 및 복지지원의 틀을 제시하기 어려웠고 지엽적이고 특정 현상, 지역중심으로 이어지는 한계를 보였다.

넷째, 시설의 제약은 곧 활동프로그램의 취약성으로 이어졌는데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을 분석해 본 결과 기관의 운영이나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표면적인 성향을 제시할 뿐 파주시의 전체적 맥락과 연계시킬 수 있는 특화된 방향성이 부족한 점이었다. 물론 청소년문화의집이라는 한계성이 명백하였기에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거나 또는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서로 공유하면서 청소년에게 빠르게 제공해 주어야 할 과업이 미흡한 점은 아쉬웠다.

다섯째, 청소년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요구도를 충분히 소화시키기 어려운 구조의 개선이 없이는 청소년활동의 발전을 도모할 길은 멀어 보였다. 특히 재단설립과정에서 분석된 청소년의 요구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시하고 있었다.

①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는 평가는 다른 어떠한 사항보다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싶다. 청소년시설을 알게 되는 경로 역시 친구나 선후배 등이었으며,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뭐하는 곳인지 모르거나(34.3%), 관심이 없다(31.9%)는 점은 아마도 파주시 청소년들이 타 지역처럼 평준화 지역이 아닌 학교의 학업 비중이 높은 관계로 학업 비중이 높은 점도 있겠지만 청소년에게,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되어져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은 깊이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②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목적을 보면 가장 많은 응답이 취미활동(34.7%)에 머물고 있었다. 이는 청소년문화의집에서 하는 활동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개발을 수행하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흥미유발차원에 머물러 있는 점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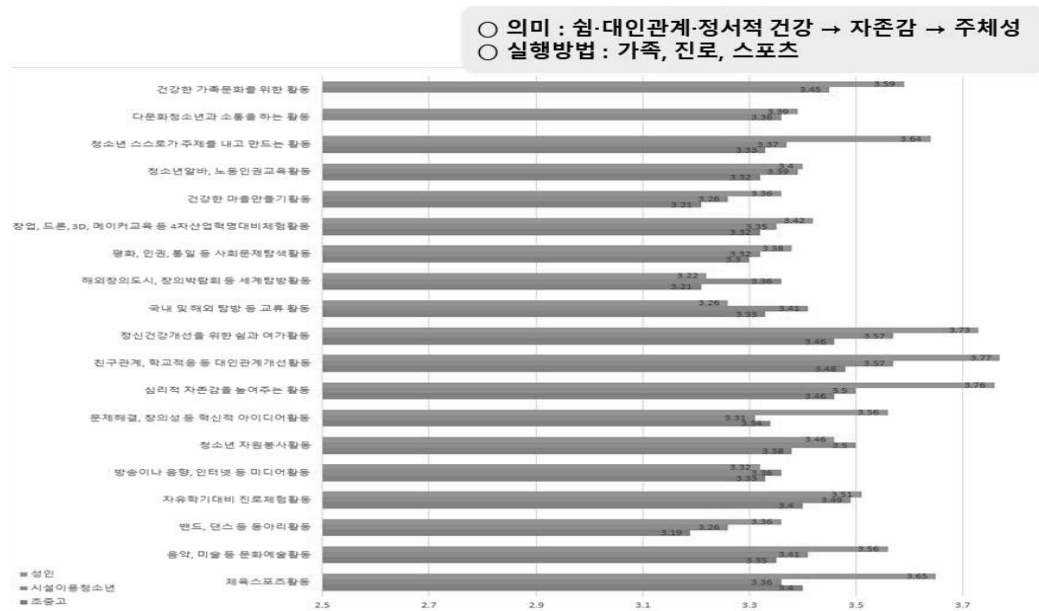
③ 다양한 활동을 하고자 해도 부족한 시설(37.0%)로 인한 불만이 높았는데(시설 및 프로그램 여건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39.0% 정도임) 이러한 시설 부족은 단시간 내 해결해 주기는 어렵지만 시설의 이용목적 역시 취미활동(23.0%)에 대안 응답이 높았다. 다만 이보다 높은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32.6%)는 점은 청소년시설의 발전가능성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였다.

④ 주요 활동으로는 동아리 활동이 대부분이며 프로그램의 홍보 부재(22.0%), 파주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 부재(20.3%), 타 지역에 비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부족(17.1%) 등으로 응답한 것을 보면 청소년재단이 앞으로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가를 개괄적이나마 보여주고 있었다.

4) 파주시는 최근 경기 북부의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확장적 관점에서 볼 때 치밀하고 포괄적인 도시계획의 안정적 수립을 기반으로 움직여진다고 보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인다. 물론 이러한 개발계획의 구조는 대부분의 경기도 지역이 안고 있는 한계이기는 하나 성장과 개발지향적 도시로 인한 변화는 아직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정교한 과업이행의 관점과는 다소 거리가 있었다고 여겨진다.

5) 이러한 지원 규모의 취약성은 파주시가 다른 지역보다 부족한 시설보유에 기인하기도 하였다. 다만 향후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실제 사업수행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취약성은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본다면 파주시 청소년들이 원하는 청소년활동의 지향점으로서는 [그림4]에서와 같은 형태의 활동유형을 많이 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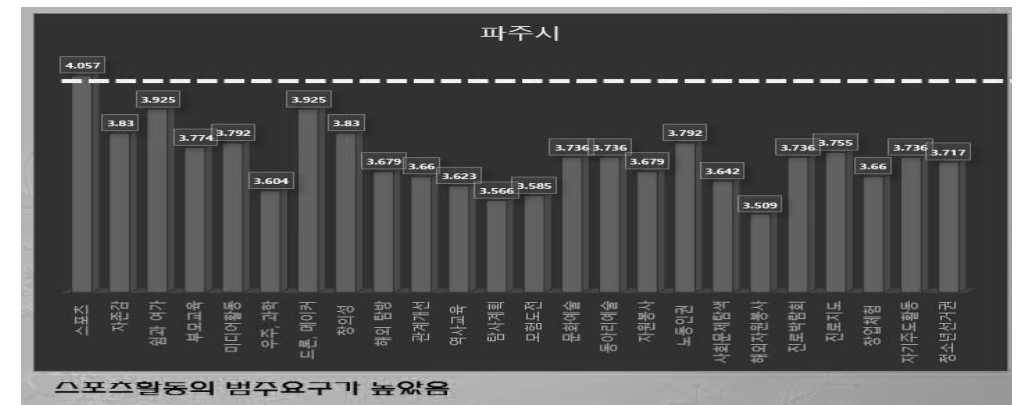
[그림4] 청소년활동의 영역 중요도  
자료 : 파주시, 2020:78.

그렇지만 2021년도 경기 북부지역의 청소년들이 원하는 활동유형을 조사한 결과는 [그림5]처럼 다소 차이가 나는 응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많은 어려움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파주시민과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의 설립에 대한 긍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고, 나름 큰 기대감을 보이고 있었다. 물론 하나의 새로운 시설이 설립되고 제대로 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만의 사고로서는 우월한 성과를 갖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파주시 청소년정책의 전반적 흐름을 보면 청소년에게 집중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조건을 충족시켰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아마도 청소년정책은 파주시의 한쪽 귀퉁이에 분명 있기는 하지만 표가 안나는, 그러나 형식적인 수준에서 우선순위도 낮은 정책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청소년에게 맞는 맞춤형 활동의 지향성을 재고하고 올바른 방향을 정립하여 청소년을 위한 정책이 되도록 하는 노력을 해 준다면 이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대책으로서 최적의 방향이 정립되어질 것이다.



[그림5] 파주시 청소년의 활동요구도  
자료 : 2021 경기 북부지역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 2021 미간행 자료.

### 3. 파주시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청소년재단의 역할 및 기능

파주시청소년재단은 다른 경기도 지역의 여러 기초자치단체와는 달리 매우 어려운 입지적 여건을 기반으로 탄생되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이라 함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청소년특화시설을 기반으로 시설설치의 토대를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파주시는 다른 지역과 다른 기형적 모습을 보이고 출발하였다.

청소년활동을 종합적으로 통찰하고 파주시와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교육정책, 청소년정책과 긴밀한 조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핵심 허브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출범한 청소년재단은 아직까지도 올바른 통합적 청소년활동을 추진할 총체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립된 청소년재단은 재단산하의 하부기관들이 청소년활동의 온전한 기능을 수행하고 파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바램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1) 파주시 청소년의 잠재적 역량을 끌어내기 위한 참여적 활동의 개발과 지원

최근 청소년활동의 주류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참여와 자율성에 기반한 자기주도적 활동의 기회제공일 것이다. 모든 활동이 자발적이고 스스로 행하도록 하는 적극성을 보장해 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 그러한 기회에 참여하도록 하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주는 것은 청소년활동의 한 흐름

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시민의식함양과 선거권 등 참여적 역량의 발판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준 그간의 노력을 토대로 청소년들이 실제 삶에 주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청소년참여, 청소년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기회마련이 확대되어야 한다.

작금의 청소년참여행태를 보면 참여위원회, 운영위원회 등 소수의 청소년들이 참여를 전제로 부각되는 일이 다반사이며 우리는 이것을 참여활동으로 포장해 버리고 만다.

하지만 진정한 참여는 청소년들이 행하는 여러 활동을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고 행하며 평가를 하는 말 그대로 활동의 주체적 행위가 보장되어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를 위한 참여위원회를 구성하더라도 파주시의 청소년들이 가급적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시 전체의 참여위원회, 지역별 참여위원회, 동별 참여위원회 등이 구성되고 서로 피라미드 구조로 참여를 실행해 보도록 하는 구조를 형성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새로운 의제를 그리고 방법론은 가미해 보는 시도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 2) 청소년재단 안착을 위한 파주시, 시의회의 전향적 협력 지원

재단이 설립되면 규모가 확대되게 되고 관심을 쏟는 사람이 많아지게 된다. 똑같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집 등이 구분되어 운영될 때의 예산 규모가 통합되면서 자연스럽게 부피가 커진 규모에 대해서 의회나 정책담당자의 관심은 급증하게 된다.

이전과 같으면 거의 무시되었던 청소년시설이었지만 재단이기 때문에 받는 관심은 급증하게 된다. 하지만 관심이 큰 만큼 관리와 통제의 시각이 아니라 지원과 협조의 전향적 시각이 필요하다.

청소년재단이 청소년에게 본연의 실행적 역량을 갖추게 됨에는 시와 의회의 전폭적 관심과 지원은 필수적이다. 무엇을 도울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협조해 주는 자세와 대응이 먼저여야 한다.

## 3) 청소년시설의 청소년중심 활동운영방향 제시

청소년시설은 청소년중심 활동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는 낮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과연 우리 파주시를 대표하는 활성화된 프로그램, 그리고 인상 깊은 활동의 여건 등을 갖추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멋진 프로그램과 명품활동이 지배한다면 청소년들은 청소년재단을 통해서 자신의 원하는 활동의 요구도가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진로지도, 진로박람회, 자율활동, 참여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등을 제공하지만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떠한 성과가 청소년에게 부여될 것인지를 스스로 깨닫고 성취하도록 하는 결과 중심의

대안을 반드시 설명해 주고 그러한 기대감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무관심하고 가짜도 할만한 프로그램이 없는 곳, 또 그러한 기관으로 소문난다면 더 이상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중심 공간으로 자리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책임은 청소년재단에 있을 수 밖에 없다.

## 4) 청소년시설의 지도자역량강화와 우수지원 표방

청소년재단이 마련되었을 때 항상 고민하는 한 가지는 파주시 전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과업수행에 어떻게 재단이 대응하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인지를 방향성이다. 아직까지는 이러한 광역적 관점으로서의 시각을 갖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속속들이 파주시 전역에서 각 지역 간 차이는 무엇이며 어떠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가의 준비된 자료를 만드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말로만 번지르르하게 표현하고 그래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실행사업을 위해서 노력하고자 한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과업이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언급해 보고 이에 대한 직원 간 눈높이를 서로 맞추어 보는 시도를 해야 한다.

누구나 멋진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표현이 청소년에게는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는다. 직접 실행사업을 할 때에 단순한 과업이나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그 의미 속에 청소년지도자는 어떤 철학과 방법을 담아서 청소년과 함께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노력을 해야 한다. 아마도 재단의 관계자는 이러한 고민을 내리고 해결책을 던져주는 능력을 겸비해야 할 것이다.

## 5) 청소년시설의 독립적 설계지원과 특성화 방안 구축

최근 서울시의 경우만 보더라도 이미 청소년시설은 독립적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되 나름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해주는 기능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어느 곳은 추억의 공간, 쉼의 공간, 미래의 공간, 소통의 공간, 과학기술의 공간 등 우리가 추구하는 새로움은 이전과 다른 상상과 창의를 터전임을 명시하고 있다.

무조건 청소년문화의집을 시설특성화를 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우리 시설이 표방하는 전체적 차별성이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 시설특성화를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별한 기자재를 겸비한 공간으로서의 접근을 말하고 단정 짓는다.

하지만 그러한 시설이기 전에 시설 전체가 추구하는 프로그램에서의 특별한 가치와 변화를 선도하는 능력이나 과업 등이 충실히 보장되는가의 설명이 전제되어야 한다.

유튜브나 정보수용, 기타 여러 모양의 특성화된 공간을 갖추었지만 청소년지도자가 이를 통해서 확산적 활동을 유지하지 못한다면 이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시설에는 어떠한 특성화를 꾀할 것인지를 서로 심도있게 논의하고 대안을 만들어 가는 해안이 필요하다.

## 6) 청소년재단의 홍보역량강화

많은 청소년들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 이러한 원인을 보면 우리가 수행하는 홍보의 방법에 대한 혹 문제는 없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제공하는 활동이 무엇인가를 고려해 본다면 우리가 청소년에게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은 결과를 얻고자 함에 있는지 아님 과정을 중시하는 것인지를 명백한 가치가 수용되어져야 한다.

청소년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은 청소년을 위한 결과적 상품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결과중심으로 홍보하며 유인가 높은 활동처럼 안내하고 있지만 한번 경험한 이들이 입소문을 내지 않게 된다면 그 활동의 생명력은 다하게 된다.

그것보다 오히려 청소년활동의 과정을 중시하고 과정에서 지도자와 교감을 통한 청소년의 성장이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성취감이 많도록 안내하고 지원하는 방법이 더 중요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프로그램홍보가 외형적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아닌 진정으로 중요한 청소년 중심의 활동임을 안내하고 소통하는 형식의 홍보방식에 일대 혁신을 이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 7) 청소년재단의 사회변화흐름을 선도하는 정보수용과 안내능력 겸비

청소년재단은 변화의 주류로서 자리잡아야 한다.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데 활동의 흐름은 과거의 형식에 맞추어져 있다면 이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4차산업혁명과 이에 걸맞는 공유경제의 사회에 청소년들이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변화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주어야 한다<sup>6)</sup>. 이러한 실천적 역량을 갖추고 지도자의 능력을 끌어올리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재단은 지도자 교육은 물론 지도자가 안심하고 신뢰하는 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는 관계설정에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란다.

## 8) 청소년과 함께함이 모토이자 실행하는 청소년재단 되기

이전의 활동은 정책의 모든 요인으로 오롯이 수용하고 추종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면 청소년재단의 설립을 중심으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청소년과 함께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항상 필요하다.

따라서 이전과 다른 청소년활동을 벗어나야 하고 청소년의 정책참여수준 역시 참여는 있으나 명목적 참여(Tokenism)에 불과한 점이 아닌 명실상부한 청소년중심, 청소년의 욕구에 기반한 활동, 청소년을 상시적으로 이해하고 이들과 함께하는 대안적 협력자로서의 청소년재단이 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란다.

6) 최근 사회변화에 맞추어서 경제교육을 청소년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자. 과거 은행에 예금하고 돈의 씹쓸이를 안정적으로 하는 것이 경제교육이었다면 지금의 사회에서 이를 그대로 적용함이 타당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경제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

청소년을 위한 업무가 중핵적 가치로서 대두된다면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역할과 기능을 해야 할 것인가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더욱이 지금과 같이 청소년들을 마음놓고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창의적 아이디어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 4. 나오면서

파주시가 청소년재단을 설립하면서 어떠한 목적과 생각을 투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경기도 지역의 18개 재단 중의 하나로서 같은 형식을 보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들과 다르면서 청소년에게 다가가는 청소년재단이 될 것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는 곳이 되기를 바란다.

파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청소년팀과 안전망팀을 구축하여 형식적 지원이 아닌 실제적 지원을 표방하기도 하였던 것처럼 청소년정책의 선진화를 추구하는 능력을 잘 갖춘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소년재단이 제대로 안착되고 파주시 전역의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활동, 참여중심활동, 동아리를 통한 자발적 기획과 도전 등을 명시한 활동, 더 나아가서 파주시를 대표하는 새로운 활동의 개발과 운영 등을 통해서 파주시만의 독특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이전보다 더욱 더 높아질 것으로 확신한다.

청소년시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시설에 청소년이 쉽게 찾아오며 즐김과 동시에 자신의 변화를 깨닫고 잠재적 능력을 보완하며 청소년 스스로가 성장함을 지각하는 기회로 여길 때일 것이다. 즉 청소년들이 성장의 행위를 하도록 하는 조건과 상황을 잘 만들어 주는 청소년시설과 재단이 되어진다면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은 물론 청소년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곳이 될 것은 분명하다.

청소년재단이 올바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은 파주시 청소년이 그만큼 행복한 기회를 얻게 된다는 것이며 건강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게 됨을 의미하게 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이 행복한 기회를 얻도록 하는 사회적 책무가 더욱 막중하게 되었음을 지각하고 소임을 다하도록 끊임없는 성장과 변화를 위해 고민해 주기를 소망한다.

### 참고문헌

경기청소년활동진흥센터(2021). 경기북부지역 청소년활동 실태조사 미간행 자료.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백서.  
통계청. 사회조사. 각년도  
파주시(2020). 파주시 청소년재단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청소년 상담

발제1

**한결같은 걸음,  
행복한 청소년 상담**

현선미(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한결같은 걸음, 행복한 청소년 상담

현선미(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팀장)

### 1. 들어가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청소년이 행복한 도시 파주!’

2021년 파주시 청소년 정책토론회의 슬로건을 접하며 ‘설렘’과 ‘희망’이란 단어가 떠오른다. 모두가 함께 마치 파랑새를 찾아 떠나는 기분 좋은 여행의 출발점에 서 있는 듯하다. 특히, 그 여행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맨 앞에서 지도를 펼치고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말하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며 파주시의 밝은 미래가 기대된다.

파주시가 청소년재단을 출연하여 더욱 체계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주도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고, 그 의견들을 모아 구체적 정책으로 실현시키고자 하는 실제적인 노력이 무척 의미 있게 다가온다.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갈 권리를 지닌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된다. 파주시 청소년들이 제안한 정책들 중에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청소년 쉼터 설치, 검정고시 고사장 확대 제안 등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메슬로우가 말한 것처럼 인간의 일차적 욕구와도 연결되는 안전 공간인 청소년 쉼터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육의 욕구와 필요가 가장 높은 검정고시와 관련한 제안 또한 의미 있게 다가온다. 또한, 철학적 교류 집단상담 프로그램 시행 정책 제안 등은 삶과 실존에 대한 고민을 하며 자아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매우 유익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든다.

파주시 청소년정책의 핵심가치는 행복이다. 과연 행복이 무엇일까? 청소년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 흐릿한 상태'라고 한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측정 가능한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으로 대체하여 연구하였는데, Diener(1984)는 인간의 행복은 객관적 기준보다는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주관적 판단이 더 중요하며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학력과 취업유무 등 현실에서의 경쟁과 관련된 요인보다는 개인의 건강과 자아성숙, 화목한 가정생활에 기반한 정신적 요인들이 청소년의 행복에 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송창용, 손유미:2013). 이러한 연구결과는 '행복'을 핵심가치로 둔 청소년 정책을 구상할 때 의미 있게 살펴볼 만하다. 즉, 무엇을 행복으로 보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현상이나 성과, 소유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상태가 청소년의 행복을 좌우하는 데 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많은 것을 가지는 것보다 내면의 만족감이 충족되고 자기가치의 긍정성이 확보될 때 청소년들은 더욱 행복을 경험한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러한 행복을 높이는 방법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양한 긍정적 경험을 통한 건강한 자기상을 갖는 것과 동시에 각 개인의 마음 상태를 들여다보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워가는 노력 또한 행복을 향한 의미 있는 몸짓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노력은 청소년 상담이라는 영역을 통해 실현된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을 추구하는 정책에서 결코 간과하거나 축소될 수 없는 영역 중 하나가 바로 청소년 상담이다.

외부에서 바라보기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내적 고통을 안고 있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내적 고통을 안고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은 형용할 수 없는 가족 내 아픔을 겪기도 한다. 가정의 아픔과 고통은 결국 그 지역사회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에 청소년 내면의 고통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가 함께 겪게 되는 어둡고 긴 터널이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내적 고통을 안고 있는 청소년들이 행동화할 때 그것은 폭력, 절도, 도박, 자살 등 각종 범죄와 사건 사고로 이어져 사회 문제로 대두되곤 한다. 이를 미연에 예방하기 위한 청소년의 정신건강 관련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이를 해결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도 필요할 것이다. 어쩌면 이러한 청소년의 위기 문제는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복합적으로 개입하거나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하여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때도 있다. 이러한 위기 청소년의 문제는 보다 더 전문적인 인력과 지원이 요구된다.

가정폭력으로 집에서 안전하게 거할 수 없어 뛰쳐나와 거리를 헤매는 청소년,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 고통스런 학교생활을 하다가 스스로 자퇴서를 적은 학교 밖 청소년, 어디서부터 막혔는지 그 원인도 모른 채 우울과 무기력에 일상과 단절되어 버린 상처 입은 청소년, 장애인단도 받지 못하고 일반 청소년들과 경쟁도 잘 안 되는 경계선 지능 청소년, 뜻하지 않은 사건에 노출된 이후 그 고통에 잠 못 이루는 심리적 외상(PTSD)을 겪고 있는 청소년 등등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이 우리 가정, 지역사회에 지금도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존재하고 있다. 어쩌면 이들은 스스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청소년 정책을 제안하기에 너무 힘이 부족할지도 모른다. 반면, 이들은 그 어떤 청소년들보다 세심하게 이해하고 보살피며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실제적인 청소년 정책이 제공되어야 할 대상이다. 필자는 이 모든 대상들이 청소년 상담 정책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상담 정책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 無에서 有로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필자는 이미 지역사회 내에 기초를 잡고 있는 기관들과 전문가들의 역량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전체 정책의 틀 속에 자리매김하게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예컨대, 파주에는 1998년에 개소하여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청소년들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면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상담기관인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사회 기반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안전망(CYS-Net) 사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고 현재 운영되고 있다. 또한 청소년재단 내에 학업중단을 경험하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도 설치되어 있다. 이처럼 기존의 상담전문 기관이 고유의 기능과 전문성을 유지하며, 더욱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청소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어린 시절 경험한 성폭력, 부모의 이혼, 믿었던 사람의 배신, 용납하기 힘든 나 자신의 치부 등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삶을 억눌러 왔던 고통의 상처를 상담을 통해 들여다보고 조심스레 말을 꺼내며 그 문제에서 서서히 회복되어 일상의 건강성을 되찾아가는 수많은 청소년들의 이야기들이 상담센터 역사만큼이나 쌓여 있다. 상담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 상담이란 내담자와 상담자가 만나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이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그렇기에 가장 큰 자원이 사람이며 상담자의 전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상담자는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사례에 대한 수퍼비전, 상담훈련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 상담정책을 펼쳐나가는 과정에서 무엇보다 상담자의 전문성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미 확보되어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하며, 양적 평가보다는 수혜자인 청소년이 누리게 될 행복한 삶에 대한 질적 변화에 초점이 맞춰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파주시 청소년 상담 정책에 어떠한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청소년 정책 흐름을 살펴보면 몇 가지 소견을 덧붙여보고자 한다.

2. 행복한 청소년 상담

파주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구체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며 법에 근거한 각 기관들의 고유 역할을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때, 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안정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행복한 청소년 상담정책을 위해서도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이미 결실을 맺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분석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 상담이 어떻게 공공성을 부여받고, 어떠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후, 몇 가지 부가적인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고유 기능 강화

우리나라의 청소년 상담은 1957년 중·고등학교 학생생활지도의 한 형태로 도입된 이후, 1973년 교육법이 개정되어 18학급 이상의 중·고등학교에 교도 교사를 배치하면서 학교상담으로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한편, 청소년 상담정책은 1987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이 신설, 1990년 '체육부 청소년종합상담실'을 설치하면서 정부의 정책 안에 청소년 상담이 반영되기 시작했고, 1991년에 청소년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지역 내 청소년상담실이 확대 설치되면서 본격적으로 청소년상담이 지역사회에 자리 잡게 되었다.

1990년대부터 2004년까지 청소년 상담정책은 중앙차원의 '청소년종합상담실'뿐 아니라 지역에 기반을 둔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실'과 '시·군·구 청소년상담실'을 확대 설치하여 청소년의 문제를 상담을 통해 해결하고 청소년의 내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기반시설 확충에 힘을 쏟았다. 지역 청소년 상담기관의 주요 사업으로는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전화 및 사이버 상담, 또래상담 등 다양한 형태의 상담 활동과 부모교육, 전문가 교육, 지역 내 유관상담기관과의 연계 협력 구축, 상담 연구 등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2005년은 청소년 상담정책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해다. 문화관광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총리실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통합되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위기청소년을 돕기 위한 역할을 가정이나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사회안전망인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의 시도 청소년종합상담센터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시군구 청소년상담센터를 '청소년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을 확대하였다. 청소년상담과 더

불어 위기청소년의 긴급구조와 일시보호, 보호복지, 자활자립 등의 통합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다. 2005년 이전에는 청소년의 문제와 일반 청소년의 수월성 개발까지 관심을 두었다면, 2005년부터는 위기청소년에 더욱 집중하여 상담과 연계를 통해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더 초점을 두었다. 즉, CYS-Net 구축을 통해 필수 연계기관 등 연계 협력기관 발굴 및 관리, 이들 기관의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 증대가 뚜렷하게 나타난 시기이다(황순길 외, 2015).

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21년 현재 17개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221개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크게 확대 발전하였다.

현재 전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를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및 역할을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 14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상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7. 그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를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교육과 연수를 진행하며, 폭력 및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할 상담자의 능력과 자질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상담심리사 전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면접상담 20사례 이상, 총 400회기 이상, 집단상담 60시간 이상, 심리평가 40사례 이상, 슈퍼비전 90회 이상 전문수련감독자의 지도를 받아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교육 등을 통해 변화무쌍한 청소년의 심리 내면을 빠른 시간에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자질을 향상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심리상담과 더불어 도움이 청소년에게 의료, 법률, 교육 등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스



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아울러 여러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문성과 협력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공공성을 지닌 상담기관의 종사자들이 수 년, 수십 년간의 훈련과 사업운영의 노하우를 쌓아가는 수고가 함께 어우러져야만 가능하다. 그러한 노력은 수혜자인 청소년의 행복으로 연결되는 바로미터가 되기에, 향후에도 공공의 서비스인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고유의 기능을 더욱 잘 수행해 갈 수 있도록 그들의 전문성과 이미 갖추어진 자원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확대해가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펼쳐져야 할 것이다.

## 2)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안전망(CYS-Net) 확대

위기 청소년은 청소년 상담영역에 있어 지역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청소년안전망(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구축 및 운영이다. 청소년안전망은 지방자치단체 책임 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이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사업내용에는 위기청소년 조기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청소년상담전화 1388 운영,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 관리,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 학교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1388청소년지원단 구성 및 운영, 일시보호소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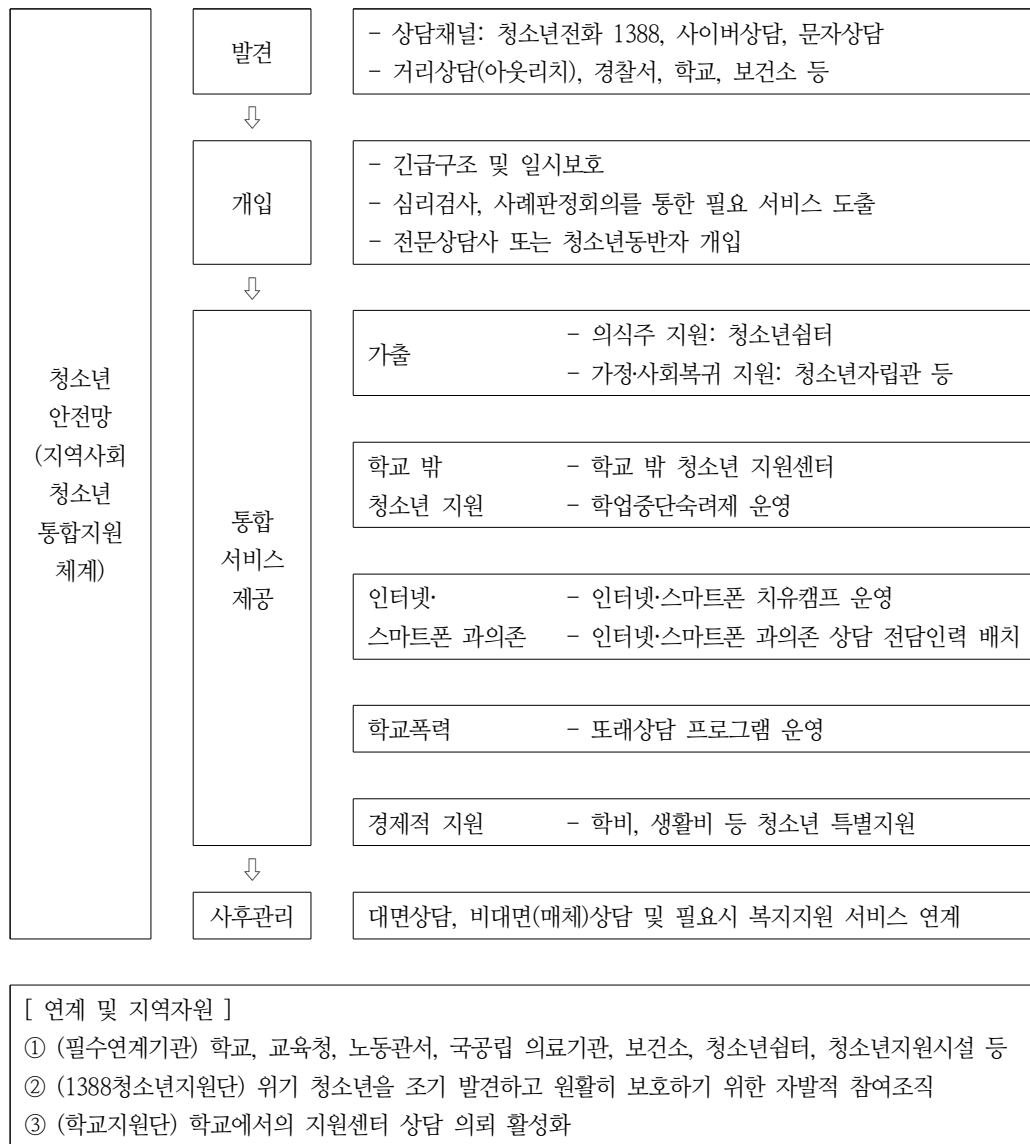
청소년안전망 운영은 그야말로 사업의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분야다. 청소년 상담자는 내담자인 청소년이 지닌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상담실 안에서 뿐 아니라 상담실 밖에서 여러 전문 분야의 기관 종사자들과 협력을 통해 가장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힘을 쏟아야 한다. 즉, 상담과 지원이 지역사회 협업을 통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청소년안전망 운영이다. 이러한 청소년안전망이 이미 파주시에서는 활발하게 작동되고 있다. 예컨대, 지난 2021년 4월에 언론(아시아일보, 2021. 4. 1)에 보도된 A양의 사연처럼 어릴 적부터 부모와 떨어져 생계를 책임지며 무의미하게 자포자기하듯 살아가는 청소년이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으며 청소년안전망팀의 도움을 받아 의식주 및 의료비 지원과 진로체험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면서 학습 의욕을 회복하고 이제는 여느 학생처럼 자

신의 꿈을 키워가며 공부하고 있는 모습으로 성장한 사례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가출, 비행 및 범죄, 성매매 피해, 자살, 심리적 외상 등 고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들을 발굴하고 전문적 상담과 적절한 연계를 통해 위기에서 청소년들을 구출한 사례들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고 있다. 소위 골든타임을 지켜 청소년들의 안전과 보호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라 하겠다.

파주시에서 ‘청소년안전망팀’을 꾸린지 겨우 1년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50여 명의 청소년이 발굴되었는데 이들 중 80% 정도가 ‘고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들은 자살이나 성매매 피해자, 정신질환 등 어른들도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 속에 놓여 있다. 이것이 파주시 청소년들의 현주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 또한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있으며 그 행복은 혼자서가 아니라 파주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찾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 내에서 고위기 청소년들이 혼자 고군분투하며 삶을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찾고, 이들에게 보이는 문제행동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심리상담을 통해 그들이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자원을 찾고 연계하며,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쏟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기에 고위기 청소년의 상담과정은 단순한 양적 평가로 설명되어지기에는 너무도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함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청소년 한 명이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스스로의 노력뿐 아니라 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가 책무성을 가지고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한다. 특히 위기 청소년에게는 이러한 사회적 울타리가 더 곤고히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안전망이 더욱 곤고히 작동,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지길 제안한다.

※ 참고 : 청소년안전망 운영 체계 (여성가족부 청소년 사업안내, 2021)



### 3) 또래 청소년 상담자 및 부모 상담자 양성 및 활성화

파주시는 수년 전부터 또래 상담을 받은 청소년들의 활동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민들의 애향심과 헌신성도 높은 도시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강점을 활용하여 지역 내 청소년의 문제를 청소년과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상담 시스템을 구축해 나

가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예컨대, 기존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진행하였던 ‘학교 평화 지킴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교육청과 연계하여 파주 지역 학교 전역으로 더 넓게 확산시키고, 그들에게 학교 내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위기청소년들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절한 역할을 부여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청소년 또래상담 활동에 관한 상담전문가의 지도와 교육, 활동성과에 대한 인증과 포상을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

청소년기는 청소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특히 부모들에게도 힘든 시간이다. 흔히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의 고민과 부모-자녀관계 갈등도 심각한 경우가 많다. 부모 또한 누군가의 지지가 필요하다. 물론 상담자를 찾아가서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면 가장 좋겠지만 생업으로 인해 마음은 있어도 시간이 낼 수 없거나 주변에 마땅한 상담기관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파주시는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반면, 상담기관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에 상담실을 쉽게 찾기가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또 다른 영역의 상담 확장을 위하여 찾아가는 부모 교육을 활성화하고, 부모 자원을 상담자로 교육시켜 ‘부모 마음 지킴이’로 활용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존에 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카운슬러 대학의 확장으로 이해해도 되겠다.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과 배움의 열정을 지닌 시민들에게 상담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배움의 장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부모들 간의 부모 자조 모임을 통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며 힘을 북돋워주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또한 지역 주민센터와 학교 등과 연계하여 부모들 중에 자녀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고위기 청소년 부모를 발굴하고 상담 연계와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작년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등교하지 못하고 또래와의 만남이나 나눔도 제약을 받는 단절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청소년과 부모들의 정신건강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의 2019년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19 유행 이전과 비교해 청소년의 53.2%에서 학업과 관련 없는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 활동이 늘어났고, 조사대상 청소년의 10.2%는 최근 2주 이내에 자해나 자살을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처럼 심각한 고위기 사례는 긴급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기에 조기발견과 초기대응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소년이, 부모의 심정을 잘 아는 부모가 선제적으로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상담에 대한 동기를 부여해 주며 적절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대인 간 상호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며, 서로를 향한 따뜻한 관심과 격려가 전달되면서 온 마을의 행복지수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4) 학교 밖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지원 강화

학교가 생겨난 순간부터 여러 이유로 인해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늘 우리 곁에 존재해왔으나 우리나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공적 지원이 본격화된 것은 2014년 5월 28일에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이다. 그 이전에는 청소년상담에서의 위기청소년 대상청소년으로서 학업중단 영역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왔다. 이 법을 근거로 지금은 전국에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①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을 포함한다. 매년 초종교 재학생 중 1% 내외의 청소년들이 여러 사유로 학교를 떠나오고 있다. 파주시 학생 중에도 매년 200여 명의 학생이 학교를 떠나오고 있고 이 숫자는 매년 누적되어오고 있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에 있어 학업과 진로탐색, 또래와의 관계를 통한 사회성 발달 등이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제시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과업을 이뤄가는 과정에 학교를 벗어남으로 인해 많은 제약과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이 학교를 떠나 온 이후, 잠시동안은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울, 불안, 초조, 무기력, 자존감 결여, 대인회피 등 정서적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생활면에서도 밤낮이 바뀌거나 온라인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범죄에 노출되는 경향도 많이 나타난다. 실제로 매년 경찰청에서 보고하는 소년범 중의 40% 내외가 학교 밖 청소년임을 감안한다면 공공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은 상담을 통한 정서적 지지와 동시에 학업과 자립을 돕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 제공도 중요하다. 가장 많은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학력취득을 위한 검정고시 지원과 대학진학준비 지원이다. 이미 파주시 꿈드림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교육지원을 제공해주고 있다. 파주시 청소년들이 검정고시 고사장을 확대해 달라는 정책제안을 한 것만 봐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 지원은 늘 중요한 요구로 자리잡고 있는 듯 하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한 예로,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들 중 꿈드림이나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친구랑 프로그램을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참여수당을 지급하여 교육의 서비스 기회를 더 많이 확보하도록 돕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발견되는 현상 중 하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며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이 있더라도 청소년 개인의 내적 건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참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좋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때가 많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좋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밖 청소년들의 내면적 상처를 어루만지며 건강한 자아를 찾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에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적 지원을 확대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질 수 있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해 나가기를 제안한다.

### 3. 맺으며

상상이 현실이 되는 청소년들의 13가지 제안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청소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세심하게 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파주시의 노력에 청소년의 행복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공공성을 기초로 하는 청소년 정책에서 주체인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방향을 설정하고 예산을 배부하며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논제이다. 예컨대, 청소년의 잠재력 계발과 육성에 초점을 둔다면 청소년들이 제안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많은 청소년들을 참여시키며 밝은 청소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반면, 청소년 개개인이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소수의 인원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맞춤형 접근을 하기 위한 개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것이다.

이러한 차이에 대하여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거나 더 가치롭다고 평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쟁이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청소년들에게 필요하기에 이들 간의 정책적 균형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청소년 정책 중 청소년 상담영역에 있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파주시의 청소년 상담정책이 적극적으로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첫째, 청소년 상담정책은 속도보다는 방향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상담은 가시화되기 쉽지 않은 내적·정신적 활동이며, 단기간에 눈에 띄는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화학적 변화처럼 상담 전과 상담 후에 경험되는 내적 변화와 일상의 회복이 존재하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꿈꾸는 행복이라는 가치에 한층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하는 힘이 있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정책은 양적 가치보다 질적 가치에 더 무게를 두며, 개별적 목소리를 듣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좋겠다.

둘째, 청소년 상담정책은 전문성과 안정성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상담은 사람이 자원인 행위이다. 즉, 상담자와 내담자가 함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역동적 과정이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열쇠는 상담자와 내담자로 불리는 사람에게 있다. 청소년이 경험한 삶의 부분적 이야기들을 듣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탐색하며 현실로 겪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전적으로 상담자의 역량과 전문성에 의존한다. 따라서 청소년 상담정책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상담자의 전문적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며 역량을 높여가는 노력은 곧 청소년의 성장과 변화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아울러 상담은 안정된 분위기와 환경을 필요로 한다. 그것은 상담자가 품기는 안정성도 포함될 것이고, 상담기관이 지닌 독특한 힘과 안정성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쌓여가는 것이다.

셋째, 공공성을 지닌 청소년 상담정책은 고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지원에 힘을 쏟아야 한다.

때로 예방적 상담도 매우 중요하나, 가출, 폭력, 자살 자해 등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그러한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 외상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이 있을 때 그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시의적절하게 개입하여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정상적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청소년 한 명의 불행은 그 한 명에 끝나지 않고 가정과 사회 전반에 부정적 파급력을 끼치고 있음을 기억해야만 한다.

넷째, 청소년 상담정책에 있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좋은 자원들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새로운 것들을 찾고 만들어 가는 시도는 참 중요하다. 그와 동시에 이미 가지고 있는 유용한 자원들을 찾고 이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강화시켜나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어느 분야에서나 경험을 통한 노하우가 중요하지만 상담영역 또한 다양한 사례들을 접하며 청소년의 내면세계와 환경을 이해하고 상담자 나름의 노하우만큼 큰 자산이 없다. 이러한 노하우와 역량을 갖추기까지 너무나 많은 훈련과정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미 지역에 청소년 상담영역에서 노하우를 많이 갖춘 기관과 전문가들이 많이 있다면 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데 좋은 자산이 될 수 있다. 기관의 역사만큼이나 해를 거듭하며 차곡차곡 쌓아 둔 성과들은 청소년 상담의 효과를 높이고 청소년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이다. 예컨대, 1990년대 후반부터 파주시 청소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지닌 수많은 청소년 상담의 노하우와 전문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좀 더 확장성 있는 상담 사업들을 추가한다면 청소년이 행복한 파주를 향한 발걸음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파주시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 구체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기본에 충실하며 법에 근거한 각 기관들의 고유 역할을 잘 기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토대 위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정책들이 자연스럽게 융합될 때, 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에서 안정적이고도 실제적인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송창용, 손유미(2013). 청소년의 행복 결정 요인. 한국교육고용패널 학술대회(제8회).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여성가족부(2021). 청소년사업안내. 서울시: 여성가족부.  
황순길, 손재환, 김화연(2015).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장기 발전방안.  
부산: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을 위한 제언

유성렬 (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을 위한 제언

유성렬(백석대학교 청소년학과 교수)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에 근거하여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서 즐겁게 활동하고 바람직한 사회 성원으로 기능하는데 필요한 준비를 차근차근히 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여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국가의 청소년정책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대변될 수 있는데, 이에 따르면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보호 및 복지, 그리고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의 4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의 시작이 청소년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 문제를 일으키는 당사자인 청소년을 선도하는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감안할 때, 청소년보호 및 복지 영역의 여러 정책들을 가시성(visibility)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영역이 일반적으로 위기 청소년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주요 정책 대상으로 삼고 있고, 특히 청소년보호의 경우에는 청소년이 성장하는 환경을 보다 유익하게 조성하기 위해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사회 환경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즉 정책의 대상이 상대적 으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작업도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청소년활동 영역의 주요 정책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 비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정된 정책 대상을 상대하는 것으로 보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사회적으로도 대학입시라는 그늘 아래서 학부모는 물론 청소년들조차도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청소년활동 정책은 성과 확인도 용이하지 않아 경

우에 따라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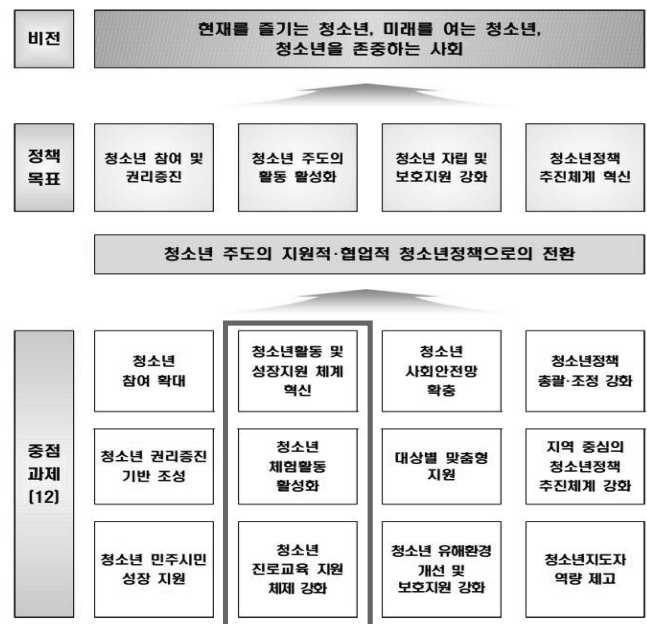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이 갖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청소년활동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청소년기본법에서도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가와 경기도, 그리고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건 등을 감안하여 향후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정책이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국가, 경기도 및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정책 현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여 시행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으로 요약될 수 있다. 특히 현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제6차 계획은 2022년까지 활용될 예정이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림 1>에서와 같이 정리될 수 있는데, 여기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4가지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개괄

이 가운데 청소년활동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의 3개 중점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중점과제의 수행을 위해 설정된 세부내용에는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난다. 이를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활동 정책을 전개함에 있어 청소년의 역량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은 청소년 역량을 함양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활동의 성과도 청소년역량을 중심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특히 제6차 기본계획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신장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두 번째로 **청소년활동에 관한 제6차 기본계획의 주요 기조는 “청소년이 주도하는” 청소년활동에 대한 강조이다.** 즉 성인들이 만들어 놓은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을 직접 기획해서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봉사활동도 단순히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찾아서 하기보다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봉사활동을 개발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활동은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으로 진행되며,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과 정보 등을 제공해 주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표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중 청소년활동 영역의 주요 과제

중점과제	세부 과제
1. 청소년활동 및 성장지원 체계 혁신	1)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
	2) 청소년 주도 프로젝트 활동 활성화
	3) 과학기술산업 분야 핵심인재 양성
	4) 수요자 중심으로 청소년활동 인프라 재구조화
2. 청소년 체험활동 활성화	1) 청소년 문화예술활동 지원
	2) 청소년 스포츠 활동 활성화
	3) 국제교류 활성화 및 내실화
	4) 남북한 청소년 교류 기반 조성
	5) 청소년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원 체계 강화	1) 대상별 맞춤형 진로활동 내실화
	2)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진로교육 강화
	3)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청년 취업 지원 기반 강화
	5) 청년 창업 활성화

출처: 여성가족부(2018), 2018~2022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pp. 39~57

특히 이러한 흐름은 최근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면활동은 물론 여러 가지 형태의 비대면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비대면활동에 익숙하게 적응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전처럼 온전히 수련시설에 모여서 청소년지도자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은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물론 제6차 기본계획에서 이러한 상황을 예견한 것은 아니지만,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이 주도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활동으로 발전시키고, 관련 플랫폼을 통하여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청소년 자유공간에 대한 수요이다. 청소년수련관을 비롯한 청소년 활동 시설의 거의 모든 공간은 특정한 목적을 지닌 활동을 위해 설치되었으나, 최근 청소년들은 특정 활동을 위해서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 없이 찾아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고, 따라서 자유공간을 마련하여 그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고자 하고 있다.

네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은 청소년활동을 전개함에 있어 지역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어울림마당을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사회 문화시설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고, 청소년 스포츠활동의 경우에도 지역자원을 발굴하여 연계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한 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즉,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진행되는 진로체험활동 및 진로교육을 학교에서의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진행하고, 학교 밖 청소년은 물론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장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나타난 경기도의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주요 내용은 아래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경기도의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상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부분과 기본적으로 상당부분 내용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우수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통한 보급 정책과 더불어 각종 예술제 개최 등을 통한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미래인재 양성의 관점에서 청소년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역 연계를 통한 진로교육의 활성화 및 청소년교류활동의 활성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종합하면, 청소년활동에 관한 경기도의 청소년정책은 국가 청소년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주요 사업별로 보다 세분화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표 2> 경기도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중 청소년활동 영역의 주요 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중점사업
2. 청소년의 주도적 활동 증진	2-1. 청소년 활동 지원	2-1-1. 청소년 활동 보급
		2-1-2. 문화예술활동 지원
		2-1-3. 체험활동 안전관리 강화
		2-1-4. 주도적 활동 공간 조성
	2-2. 청소년 역량 강화	2-2-1. 미래인재 양성
		2-2-2. 대학생 역량강화
	2-3. 청소년 진로 다각화	2-3-1. 진로체험 활성화
		2-3-2. 기관연계 진로 다각화
	2-4. 청소년 교류 촉진	2-4-1. 국내교류 활성화
		2-4-2. 국제교류 활성화

출처: 권일남 외. 2020. “2020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pp. 36~37

다음 파주시의 청소년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정책의 비전을 “미래의 성장 동력, 청소년이 행복한 파주”로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미래사회를 이끌 핵심 주체로 설정하고, 이러한 청소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파주시를 구현하는 것을 청소년 정책이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2> 파주시 청소년정책 개괄  
출처 : 권일남 외. 2020. p. 41



〈그림 2〉에 나타난 파주시 청소년정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목표와 중점과제의 경우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을 충실히 따르면서, “사업추진” 항목을 통하여 파주시 청소년정책이 중점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사업추진의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 지향하는 바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계획을 토대로 추진된 2020년의 파주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 내용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2020년에 파주시가 추진한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전체 14개 항목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개 항목(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청소년 종합예술제, 청소년 수능행사, 파주시 청소년 예술제, 청소년문화거리 조성)이 청소년 문화예술활동과 관련된 내용임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 동아리 활동과 관련한 내용이 3개(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운영)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과 관련한 항목이 2개(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마지막으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한 항목이 2개(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청소년 현장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3〉 파주시 2020년 청소년사업 내용 중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

영역	사업명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	1. 청소년 어울림마당
	2.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3.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4. 청소년 현장체험
	5. 청소년의 달 및 성년의 날 기념행사
	6. 청소년종합예술제
	7.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진대회
	8. 청소년 수능 행사
	9.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10. 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11. 파주시 청소년 예술제
	12. 청소년증 발급
	13. 청소년문화거리 조성
	14. 청소년 동아리연합회 운영

출처: 권일남 외, 2020. pp. 42~43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파주시의 정책은 주로 문화예술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경우 행사 성격을 지닌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업들과 더불어 청소년 참여활동과 관련한 2개 사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2개 사업 등이 파주시가 지향하는 청소년의 다양한 역량 강화라는 사업추진 방향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2.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을 위한 제언

앞 절에서 중앙정부와 경기도, 파주시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경기도는 물론 파주시의 청소년정책의 근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및 파주시의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주요 사업들을 도출하여 시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절에서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추구하는 정책 목표와 방향을 염두에 두고,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파주시의 청소년 정책이 지향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 1) 청소년 역량 함양에 초점을 둔 청소년활동 정책으로의 전환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이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으로 우선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여러 사업과 프로그램들의 기본 목표를 청소년 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2020)에 따르면,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이란 “급변하는 사회에서 직면하는 현실과제 및 진로 문제를 청소년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며 균형 있는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활동에서 길러져야 할 능력”(p. 6)으로 규정되어 있다<sup>1)</sup>. 여기서 핵심역량은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다(〈표 4〉 참조).

1)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 역량기반 청소년활동 가이드.

〈표 4〉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핵심역량	내용
비판적 사고	·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주제와 원칙에 따라 배움으로 연결하는 능력
의사소통	· 생각과 질문, 아이디어와 해결 방법을 공유하는데 필요한 소통 능력
협업	· 하나의 공동 목표를 향해 여러 명의 재능, 전문지식을 합치는 능력
창의력	· 혁신하고 발명하는 것처럼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능력
사회정서	·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며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는 능력
진로개발	· 평생에 걸쳐 빠르게 변화하는 직업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개인의 흥미와 적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독특성을 개발하여 자기주도적 및 창의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개척설계실행하는데 필요한 능력

출처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 p. 7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의 정의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을 하는 목적은 핵심역량을 기르는 것이며, 따라서 성공적인 청소년활동이란 실질적으로 이러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활동이 기본적으로 청소년 역량을 기반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활동을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역량을 기를 것인지를 중심으로 목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활동의 내용은 기획 단계에서 설정된 역량을 실제 함양할 수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활동의 평가는 기획 단계에서 목표로 설정한 역량이 실제로 길러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sup>2)</sup>.

청소년활동과 관련한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청소년역량을 중심으로 초점을 두어야 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 우선 이것이 청소년활동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파주시가 전개하는 청소년활동 관련 사업들이 이를 통해 창출된 수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파주시가 제공한 예산을 비롯한 자원을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청소년활동 사업을 통해 실제 무엇을 달성하였는지를 확보하는 것은 책무성(accountability)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목표달성 여부는 청소년활동을 역량 중심으로 구성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보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를 통하여 청소년활동의 필요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는 청소년활동 핵심역량 측정 도구를 개발하여 각 역량별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20).

청소년활동을 청소년 역량을 중심으로 접근하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과 보다 용이하게 연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5년에 개정된 학교의 교육과정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르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핵심역량으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및 공동체 역량 등 6가지로 구성되어 있다<sup>3)</sup>. 이는 앞서 언급한 청소년활동 핵심역량과 근본적으로 유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건으로 학교 정규교육과정과의 연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역량 중심 접근은 청소년활동과 정규교육과정과 연결하는 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 역량 중심의 청소년활동 정책은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활동을 청소년역량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노력은 각 청소년 수련시설이나 수련시설 종사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사업을 총괄하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 총괄적으로 관리하여야 가능하다. 즉, 재단 산하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청소년역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그 현황을 관리하여 부족한 역량을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혹은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의 총괄적인 관리를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 2) 청소년의 자기주도활동 공모사업 실시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성을 진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청소년들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직접 수행하고, 사업의 평가에도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성취감과 더불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주도활동에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의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활동 공모사업을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실질적인 수행을 담당하는 사업운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청소년의 자기주도활동에 대한 공모사업 참여 공지에 따른 참여 신청접수 후 일정 기간 동안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고, 활동의 내용과 성과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시상함으로써 참여 청소년들을 독려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활동의 종료와 함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는 워크숍을 개최하거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하여 청소년 자기주도활동의 지속적 확대보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3) 교육부, 2016.1. “『2015 개정 교육과정』 질의응답 자료”.

### 3)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청소년활동에서 강조되는 사업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참여활동을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의 청소년활동에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활동을 구성하고 청소년들은 참여하는 것이 기본적인 틀로 작용하였다면, 이제는 청소년지도자들이 활동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스스로 활동을 구성함에 있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수단으로서의 청소년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이슈, 세대 간 통합이나 청소년 권익 개선 등 지역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활동을 구성하고 활동을 통하여 실제 해결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다른 청소년들은 물론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사람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청소년활동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데에도 매우 유용한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청소년활동도 앞서 언급하였던 자기주도활동 공모 사업에 함께 포함한다면, 지역사회의 여러 구성원들에게 청소년활동의 의의를 알리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4) 메타버스를 활용한 청소년활동에의 접근성 강화

2020년 이래 현재까지 청소년활동은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즉 코로나-19로 인하여 기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청소년활동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가고 있다. 우선 온라인을 통한 비대면 프로그램은 물론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한 활동을 전개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참여 청소년들에게 배송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활동을 전개하는 방식도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을 통한 의사소통을 위해 특정 화상회의 프로그램<sup>4)</sup>을 집중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현재는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청소년들도 그러한 프로그램에 매우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다.

이는 청소년활동에 대해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앞으로의 청소년활동은 코로나-19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청소년들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청소년 수련시설에 와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청소년활동은 이러한 의문에 답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만일 굳이 청소년 수련시설에 와서 청소년활동을 하여야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활동은 결국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매우

우 높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존의 화상회의 프로그램과 더불어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현실 세계와 같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가상 세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화상회의 프로그램에서는 단순히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면, 메타버스에서는 게임처럼 자신의 아바타(avatar)를 움직이고 이모티콘 등을 통하여 감정을 표현하며, 추가적인 장비 없이 채팅이나 음성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동의 확장이 가능하다. 특히 일부 메타버스 플랫폼에서는 청소년시설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바타를 통하여 시설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소년 시설에의 물리적인 접근성이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 시설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고, 이를 활용한 청소년활동에의 참여도 가능하다. 따라서 청소년시설이 이러한 메타버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5) 관내 교육청 및 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청소년활동 전개

청소년활동은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것이 아닌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적 학습활동”을 총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면, 청소년활동과 학교 교육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는 상호간에 관계없는 활동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인 학습활동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이 긴밀한 연계 체계 속에서 이루어질 때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학교와 청소년시설 간의 간극이 매우 큰 것도 사실이며, 두 주체 간에 협력에 대한 논의도 별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역량 기반 청소년활동과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두 주체가 서로 긴밀한 연계를 맺기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파주시 차원에서 교육청과 파주시청소년재단, 그리고 지역의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례 제정 등 여러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은 물론 온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6)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체계 구축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의 아동·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의 진로교육 활성화이다. 특히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은 소위 꿈이 없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중요한 통로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 시설에서의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청소년

4) Zoom, Webex, Google Hangout 등

년을 위한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자원(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구성원과 사업장 등)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접근 방법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내부의 자원의 관점에서 보면, 청소년 진로교육과 진로체험을 위해 시간이나 경비를 할애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차원에서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지역사회 연계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파주시와 파주시청소년재단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지역사회 내 자원을 발굴하고 파주시 거주 청소년들의 진로교육을 위한 연계 체계를 구축하는 작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러한 연계 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이에 참여하는 지역자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7) 파주시 청소년의회 운영

최근 청소년의 선거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함과 더불어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치 과정에의 참여가 중요 이슈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내 여러 지자체를 비롯하여 청소년의 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수가 늘어나고 있다. 지역사회 자원 배분이라는 정치 과정에 대한 참여 경험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정치 영역에서의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하기 때문에 청소년의회의 운영은 청소년 참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파주시의 경우에도 청소년의회의 구성과 함께 이를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참여예산제와 병행하여 운영할 경우 청소년 참여 경험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의회 및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주관 기관은 파주시청소년재단이 담당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8) 파주시 청소년정책 관련 조례 정비

앞서 파주시가 검토하여야 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제안하는 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파주시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진로교육 활성화와 청소년의회 운영 등과 관련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 밖에 청소년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조례의 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sup>5)</sup>.

이와 더불어 파주시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 청소년상담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상담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사도 포함하여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처우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 9)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로서의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역할 정립

파주시 청소년활동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파주시 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이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행하는가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위해서는 파주시청소년재단이 파주시와 청소년 수련시설 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활동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며,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결과를 점검하는 것이 파주시의 핵심적인 역할이라면, 파주시청소년재단은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정책을 구체화하여 이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각 시설별로 구체화된 사업과 확보된 재원을 분배하며, 수립된 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사업 종료에 따른 성과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파주시에 보고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재단 산하의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업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함과 동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활동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음을 감안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수련시설의 행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기존의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파주시가 지향하여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물론 여기에 제시된 의견들은 비교적 쉽게 반영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검토와 고려가 전제되어야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이 글을 통하여 추구한 것이 파주시와 파주시청소년재단이 당장 도입하거나 실현할 수 있는 것을 제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하는, 즉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이와 관련한 제안들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향후 파주시의 청소년활동 정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글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중요한 생각거리로서 제공되어 “미래의 성장 동력, 청소년이 행복한 파주”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길 희망하며 글을 마치고자 한다.

5) 2021년 파주시 청소년 정책토론회에서는 파주시 청소년 조례와 관련하여 청소년 성범죄 예방 교육 조례,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 교육 조례,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의 제정이 제안된 바 있다.

## 청소년들이 미디어로 만드는 살고 싶은 파주

김양은(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

## 청소년들이 미디어로 만드는 살고 싶은 파주<sup>1)</sup>

김양은(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교수)

### 1. 청소년과 미디어

미디어와 관련한 논의를 전개하다보면, 다양한 세대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다. 개인휴대용 기기를 소유하느냐에 따라 구분했던 X세대에서 시작해서, MZ세대<sup>2)</sup>에 이르기까지 미디어와 관련한 세대론들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알파세대<sup>3)</sup>에 대한 논의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처럼 영상미디어가 등장한 이후, 미디어와 새로운 세대들의 특성을 결부 짓는 논의들이 등장했는데, 이는 미디어가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sup>4)</sup>,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87.8%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9명가량이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것을 분석되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비스는 유튜브이고, 왜 유튜브를 보는지 ‘혜택’에 대한 문장에 동의하는 척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와 관련한 응답이 상위권에 많았다(배상률 외, 2020). 실제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유튜브를 보는 이유로 ‘정보’라고 응답했고, 특히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학습한다고 응답했다(김양은, 2018b). 이처럼 10대들은 소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라고 불리는 서비스를 주로 이용하며, 영상이 검색의 도구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 속에서 미디어는 의사소통의 수단이며, 문화를 향유하는 통로이다(배상률·김형주·성은모(2013)). 또한, 이들에게 미디어는 지식·정보습득의 도구, 학습 및 여가활동의 수

1) 이 글은 세미나를 위해 구성된 글입니다. 추후 외부 인용은 삼가주시면 합니다.

2) 밀레니얼 Z세대를 지칭하는 말로, 인구통계학자들은 일반적으로 1900년~2000년까지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고 있다. 하지만, 1995년생부터를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911테러를 기준으로 Z세대를 구분하기도 한다.

3) 2010~2024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4) 본 조사는 초등학교 4~6학년 27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이다.

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변혜원, 2011). 청소년기는 다양한 정체성을 실험하고, 나에서 우리, 그리고 사회로 나아가는 관계성이 확장되어지는 시기이며, 미디어는 이를 더욱 원활하게 도와주기도 한다. 특히,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는 청소년과 미디어를 항상 연결해주고 있으며, 연결된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표현하고, 소통하고 있다. 이는 미디어가 청소년들의 사회화와 세계관 및 자아를 형성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배상률, 2014). 따라서 청소년들이 어떤 미디어를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의사소통하느냐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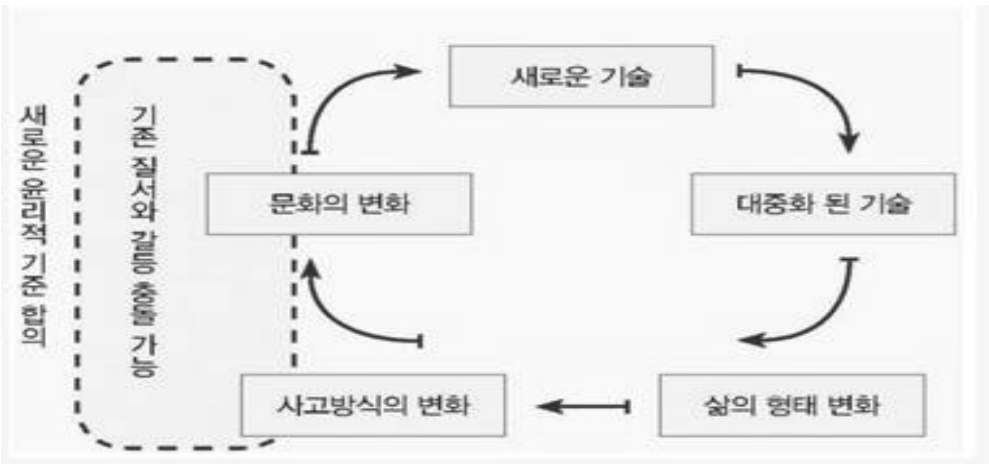
COVID-19 팬데믹 상황은 10대들의 미디어 이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2021)에 의하면, 10대들의 경우 스마트폰 이용시간이 2019년에 비해 2시간 35분에서 3시간 11분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텔레비전 시청도 1시간 29분에서 1시간 37분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연령별 필수매체 인식변화를 살펴보면,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을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10대들의 경우에,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으며, 텔레비전은 필수매체로 인식하는 비율이 지극히 낮았다(〈표 1〉참조).

〈표 1〉 연령별 스마트폰 & 텔레비전 필수매체 인식변화 (2019년 vs 2020년)

구분		합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스마트폰	2019	63.0	87.0	87.4	80.8	71.9	57.1	33.3	6.1
	2020	67.2	96.2	91.6	86.2	78.2	60.3	37.6	9.2
텔레비전	2019	32.3	5.0	7.3	12.7	22.8	39.4	64.8	91.9
	2020	29.5	0.6	4.8	8.0	17.6	37.6	60.9	89.3

자료: 정용찬(2021). 코로나, 미디어 지형을 바꾸다. KISDI STAT Report, 21-08호, 7쪽 데이터 수정 인용

현재의 청소년들은 기성세대들과는 전혀 다른 미디어 소비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소통의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여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네이버 지식인을 이용하던 청소년들은 이미 사라지고 있다. 이들에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은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놀이터이고, 궁금한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장이 되었다. 이뿐만이 아니라, 10대들은 틱톡과 같은 숏폼콘텐츠에 열광하기도 하고, ASMR과 같은 오디오 콘텐츠에 몰입하기도 한다. 텔레비전 등장 이후 줄곧 영상세대로 지칭하던 시대에서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는 현재 우리 10대들의 모습은 전혀 새로운 디지털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실제로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0대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개발에 집중하고 있기도 하다.



[그림 1] 기술의 대중화가 사고방식과 문화를 변화시키는 순환구조  
 자료: 김진숙(2020), 코로나 19가 던진 교육혁신 방향과 과제, 서울교육, 240호

청소년들의 미디어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기성세대들과는 많은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숏폼 콘텐츠, OTT의 대세에는 사회문화적 변화를 담고 있다. 이미 스마트기기가 신체의 일부가 되고 있고, 인공지능과의 교감이 익숙해지고 있으며, 2021년의 화두 중의 하나인 메타버스를 통해 가상현실을 체험하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정보를 구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것은 이미 ‘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스마트기기로 연결된 가상세계인 셈이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은 미래 사회에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을 지배하는 기술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 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미디어의 결합으로 인한 사회변화는 전통적 경계를 붕괴하고, 새로운 연결사회를 만들어내고 있다. 새로운 인간의 역할을 요구하고, 인공지능과 컴퓨터와의 감성교감, 현실과 가상세계의 결합 등을 요구하는 미래사회가 우리 아이들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 2. 청소년과 미디어정책 방향: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 1) 디지털 등장과 변화하는 미디어 리터러시<sup>5)</sup>

미디어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신문과 텔레비전의 등장은 다수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이 되었으며, 정보의 대중화에도 일정정도 기여했다. 또한, 대중들이 엘리트들의 향유물이었던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신문과 텔레비전 등의

5) 본 내용은 김양은(2020), 나는 디지털 시민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편. 내용의 일부를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디어콘텐츠를 생산, 전송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했다. 디지털의 등장은 대중들 즉, 개인이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디지털 미디어의 등장은 정보 생산과 공유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구분하지 않는 평등성을 가져왔고, 개인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와 생각을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등장은 단지 미디어를 생산하는 것에서 나아가 개인들에게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을 소유하게 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개인이 가진 미디어 플랫폼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면서 기존의 미디어가 가진 정보 전달과 확산의 속도를 넘어서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디지털 공간에서 미디어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연결된 사람의 양적 확대는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임파워먼트로 이어졌다.

인간과 미디어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미디어 리터러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간이 미디어를 주체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다. 미디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역량을 통해 스스로 미디어의 주인임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미디어 리터러시다. 특히 신문과 텔레비전 등 대중매체를 통해 생산된 메시지는 소수의 전문가와 엘리트의 목소리를 담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비판적으로 읽어내는 것은 미디어를 향한 사회참여의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래서 텔레비전 즉, 영상미디어로부터 시작된 당시의 미디어 리터러시는 비판적 해석 역량에 주목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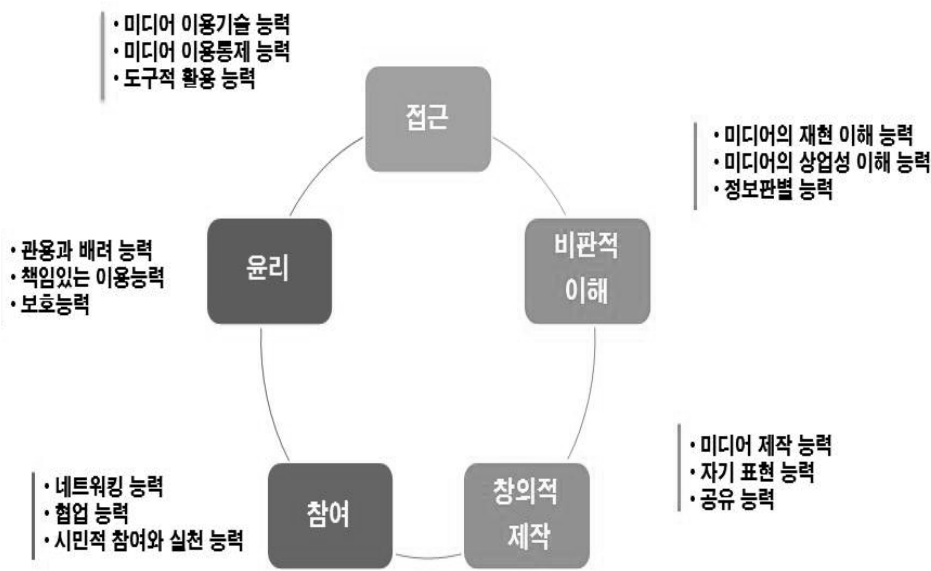
〈표 2〉 기술 발달과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변화

구분	영상사회	디지털사회	지능정보사회
중심 기술	영상	디지털	ICBM, 인공지능
특징	시각	디지털	초연결, 초지능
미디어 플랫폼	소수의 미디어	다수의 미디어	1인 미디어
이용자	수용자	생비자	창작자
관련용어	비주얼리터러시	디지털리터러시 정보리터러시 인터넷리터러시	스마트리터러시 데이터리터러시 알고리즘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비판적이해능력	미디어접근능력 미디어생산능력 미디어참여능력	비판적이해능력 미디어생산능력 미디어소통능력 미디어협업능력
미디어 리터러시 관련 키워드	비판적시청 영상	미디어제작 디지털 참여	소통 / 연결 공유 / 협업 시민성

자료 : 안정임·김양은·전경란·최진호(2017),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슈와 정책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편, 32쪽

디지털의 등장 이후 미디어 리터러시는 ‘미디어콘텐츠를 생산하는 능력’과 ‘디지털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특히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접근 능력과 미디어 생산 능력은 기술격차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었다. 기술변화가 가져올 미래사회를 대처할 역량으로써 미디어 리터러시는 필요한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확장된 미디어콘텐츠와 정보 생산 역량은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와 딜레마에 대한 개인의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게 했고, 이는 나아가 공동체미디어, 대안미디어 등을 통해 사회참여의 기반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의 진화는 미디어 리터러시 개념을 연결과 관계를 중심으로 변화시켰다.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사람들이 함께 협업을 하고 집단지성을 실현하고 있다. 때로는 공동체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온라인 청원, 클라우드 펀딩, 공동체미디어, 커뮤니티 활동 등을 통해서 토론하고 해결하고 있다. 이처럼 디지털 사회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공동체 구성원으로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다.



〔그림 2〕 지능정보사회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자료: 안정임·김양은·전경란·최진호(2017), 내용을 그림으로 구성



## 2) 디지털 시민의 참여와 미디어

과거 전통적인 시민성 개념이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였다면, 디지털 미디어와 관련된 시민성 개념은 네트워크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실천적 시민을 시민성 개념으로 표현하고 있으며(Bennet 2008), 그래서 디지털 시민성은 합리성과 실천성을 강조하고 있다(김봉섭 외, 2017, 박기범, 2014). 이는 디지털 시민성 개념이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 차원에서의 책무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합리성에 기반한 사회적 참여의 실천성과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3〉 디지털 시민성 개념 및 교육적 요소

기관(학자)	개념
유네스코(2016)	효과적으로 정보를 찾고, 접근하고, 사용하고 생성할 수 있는 역량, 비판적이고 민감하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타인 및 콘텐츠에 참여하는 역량, 온라인 및 ICT 환경을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탐색하는 역량,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는 역량
JISC(영국)	사람들이 디지털 사회에서 삶과 학습 그리고 일을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
김봉섭, 김현철, 박선아, 임상수(2017)	미래를 대비하여 디지털 기술을 미리 준비하고 현재 이용하는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지식정보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행동 방식이자 지능정보사회 구성원이 갖추어야 하는 역량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	디지털 기술에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관계 정립에 있으며, 핵심원칙은 긍정적으로 개입하고, 온라인 세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교육 정책 및 실무 운영위원회(CDPPE)	어린이와 청소년을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비판적이고 책임감 있게 온,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디지털시민성교육이라고 명명하고 있으며, 온라인에 머무르기, 온라인 행복, 온라인권리의 3가지를 역량으로 구성

\* 아래 웹사이트에서 시민성 개념을 재구성 제시

JISC(영국), <https://www.jisc.ac.uk/rd/projects/building-digital-capability> (2019년 11월 30일)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classroom-resources/digital-citizenship> (온라인접근, 2019년 12월 3일)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교육 정책 및 실무 운영위원회 (CDPPE), <https://www.coe.int/en/web/digital-citizenship-education/home> (온라인접근, 2019년 11월 30일)

디지털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시민의 공동체 참여가 자극되고, 수월하게 되었고 이것이 실천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게 되었으며, 참여적 시민이 갖추어야 할 속성들로 ①연대(Affiliations), ②표현, ③협동적 문제해결, ④정보의 순환적 유통(Circulations)을 제안하고 있기도 하다(Jenkins, Clinton, Purushotma, Robison & Weigel, 2009). 실제로 디지털 기술은 개개인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통로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초기 디지털 사회에서 논의된 전자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디지털에 제공된 다양한 게시판, 커뮤니티,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사람들과 소통한다.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참여는 자신의 일상 속에서 실천되고 있다. 특히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 사람들을 연결하는 미디어의 특성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자유롭게 이슈를 제안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 표현, 협업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참여하고, 해결하고 있다. 개방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디지털 혁신을 이끌어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은 당연히 필수이자 핵심역량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표 3〉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논의에서 미디어 기술과 긍정적인 관계정립을 위한 교육적 요소들, 그리고 기술에 주체성을 갖는 것 등은 미래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디지털 시민에게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지 기술적 차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통해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참여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 3. 청소년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책 및 환경

### 1)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정책

청소년들에게 있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최근 몇 년간 제시된 교육부 및 교육청 등의 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교육부에서는 학교미디어 교육 내실화 지원 계획(2019.7.29.)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율과 존중 연대를 실천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측면에서 민주시민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교육 활성화를 추진 전략으로 생비자(prosumer) 교육과 사회참여 학습 확대, 미디어 프로젝트 학습 모델 등을 개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한국교육개발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통한 민주시민 교육 교수학습 자료 3종(초중고) 개발을 목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관점에서 교육과정과 연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수학습 자료 「민주시민교육, 미디어와 만나다」를 개발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19.4.17.)(이미영 외, 2020, 재인용). 이외에도 학교미디어교육센터를 공모하여 경기, 충북, 대

구 지역에 설립하는 것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재 청소년정책연구원을 통해 ‘미리네(miline.or.kr)’을 통해 학교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 COVID-19 이후 많은 교육청에서 ‘디지털리터러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교육 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표 4〉 교육청별 디지털 시민교육과 관련된 개념

교육청	용어	정의	정책
서울시 교육청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기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 사람들 간에 가져야 할 시민적 소 양	- 정보 기술의 발달로 인한 디지털 시민성 교육 신장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관련 소양, 디지털 기본 상 식, 디지털 윤리,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고 생산하는 능력까지 포괄하 는 포괄적인 개념	- 디지털 미디어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리터러시 교육 제공
경상북도 교육청	디지털 시민성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디지털 활용능력과 온라인 환경에서 콘텐츠 를 도덕적으로 활용하는 능력	- 정보통신윤리교육 강화 - 타기관 연계 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 - 저작권 보호 교육
강원도 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마인드를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윤리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술과 정보를 이해하고 활 용해 정보를 탐색, 수집, 창작을 통 해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 역량을 길러 주는 것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연구· 선도학교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지원단 - 디지털 리터러시 포럼 - 디지털 리터러시 교과연구회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전용 교실 구축 - 기타 추진사업
부산시 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학생들이 일 상생활에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기 초 생활 능력을 갖추 수 있는 문해 력	-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 전용 교실 구축 - 디지털 리터러시 포럼
경기도 교육청	디지털 시민능력	자신의 사고를 표현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 한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과 그 가치 를 식별하는 동시에 존중하며, 다양 한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소 통하고 관계할 수 있는 능력	-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학습 지원 - 시민교육 역량 강화와 네트워크 활성화 -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에 대한 코로나 대응 자료집

자료: 강원도교육청(2020), 경상북도교육청(2020), 부산시교육청(2020), 서울시교육청(2019), 경기도교육청(2020), ; 이미영 외(2020), 재인용

최근에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교육청단위의 조례안이 총 9개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교육부의 2019년부터 시행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정책이 각 교육청으로 반영된 결과이 기도 하지만, COVID-19이후 원격교육이 시행되면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청소년들이 시민으로 성장하는 필수역량이라 는 점에서 고려된 것으로 파악된다.

〈표 5〉 교육청별 미디어리터러시 관련 조례안

지역	조례명	제안사유
경기도 (2020.07.15)	경기도교육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 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
부산 (2021.01.06.)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 항을 정하여 미디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강화하여 학교미디어교육 을 활성화하고, 바람직한 미디어 이용문화 조성에 기 여
전라남도 (2021.02.18.)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정보식별 교육조례안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 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내용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 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
광주광역시 (2021.02.26.)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생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미디 어와 미디어콘텐츠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활용능력을 제고하여 미디어교육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 양성에 기여
서울특별시 (2021.03.05.)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리터러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지역 학생들에게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사회에 서 반드시 필요한 정보들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그 정보의 내용에 대한 진위 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
제주특별시 (2021.04.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로 이해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는 미디어 리터러시(media literacy) 교 육과 학생의 준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준법교육 등 학생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필요 한 사항들을 추가하는 등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 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지역	조례명	제안사유
대전광역시 (2021.06.07.)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청 학생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충청남도 (2021.06.18.)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학생들이 사회 현안과 관련하여 전달되는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내용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인천광역시 (2021.09.0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함께 능동적인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이같은 CIVID-19 이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관심은 그간 미디어리터러 교육을 수행한 유관기관들이 관계부처 종합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2020). 방송통신위원회·문화체육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행정안전부의 5개 부처가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의 추진배경에 비대면 사회로의 전환, 디지털 격차, 인터넷 역기능 등과 함께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서의 디지털 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범부처 종합계획에서는 ‘디지털 시민’의 상을 디지털 기술 접근과 이해, 디지털 정보 분석, 판별, 디지털 문화에 대한 책임, 윤리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 참여의 4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사회공동체 연결망을 확보하고, 책임과 권리, 참여와 협력을 디지털 시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위한 목표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라는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표 6〉 범부처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계획’ 중 전략과제

과제	주요내용
온오프라인 미디어교육 인프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디어교육 인프라 전국망 확대</li> <li>• 온라인 미디어교육 플랫폼 구축</li> <li>• 온·오프라인 융합 미디어교육 모델 개발</li> </ul>
국민의 디지털 미디어 제작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국민 촘촘한 디지털 미디어 교육 실시</li> <li>• 신기술 활용 미디어제작 교육 강화</li> <li>• 방방곡곡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강화</li> </ul>
미디어 정보판별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위정보 판별 교육 강화</li> <li>• 미디어기술텍스트 이해 교육 확대</li> <li>• 팩트체크 교육콘텐츠 제작·보급</li> </ul>
배려·참여의 디지털 시민성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대면사회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li> <li>• 지역 공동체미디어 지원 확대</li> <li>• 일상생활 속 디지털 시민의식 제고</li> </ul>

위에서 제시한 관계부처의 미디어리터러시 종합계획은 각 정부 부처들이 그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수행해온 내용을 파악함과 동시에, 앞서 제시한 내용에 기반한 지원사항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들 정부부처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서 학교교육 이외에 사회영역에서의 청소년 대상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또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되어짐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최근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법안들이 발의 및 제정되고 있다. 특히 권인숙 의원의 발의안인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은 그간 앞서 발의된 5개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법안들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디지털과 관련한 요소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sup>6)</sup>.

이외에도 COVID-19이후 원격교육과 관련한 법안들이 개정되는 과정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디지털 원격교육에 대한 기본법으로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2021년 8월 31일)”이 제정되었다. 이 법안에 담긴 내용 중 ‘디지털문해력 교육’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6) 그간 발표된 미디어교육관련 법안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김양은, 2018a 수정·보완)

법안명	미디어교육 진흥법안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지원법안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발의 시기	2007년 4월	2012년 8월	2013년 9월	2018년 5월	2018년 5월	2020년 8월	2021년 7월
발의자	이경숙 (열린 우리당)	최민희 (새정치민주 연합)	김희정 (새누리당)	유은혜 (더불어 민주당)	신경민 (더불어 민주당)	정필모 (더불어 민주당)	권인숙 (더불어 민주당)

〈표 7〉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관련 법안 내용

관련법안	주요내용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정안) (2021.08.31)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 의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 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교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2021.06.18)	제15조(독서교육 등) ①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 교의 독서교육, <b>미디어교육</b> 및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 미디어교육 및 정보이용교육은 「초·중등교 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발의) (2021.07.14)	미디어교육위원회 설치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 미디어관련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 미디어교육 평가 미디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미디어교육 전문기관 등에 대한 지원

2) 경기도 내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환경

경기도 지역 내 미디어센터는 현재 개관된 미디어센터로는 총 7개이며, 공모를 통해 추가 선  
정된 안성, 양평, 포천, 용인의 4개 지역이 현재 개관을 준비 중이다. 경기도 내의 지역 영상미디  
어센터는 11개 지역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교육부의 선정으로 2023년 개관예정인 학교미디어교  
육센터(경기)의 경우에 고양지역에 건립될 예정이다. 이외에 방송통신위원회의 경기남양주시청자  
미디어센터가 2019년 건립되었다.

〈표 8〉 경기지역 미디어센터 현황

지역	운영주체	설립주체	개관연도
고양영상미디어센터	(재)고양문화재단	문화부	2011
군포시미디어센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산학협력단	군포시	2020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재)부천문화재단	문화부	2010
성남미디어센터	(재)성남문화재단	문화부	2012
수원미디어센터	(재)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문화부	2014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신한대학교	문화부	2017
화성미디어센터	(재)화성시문화재단	문화부	2016
경기시청자미디어센터	(재)시청자미디어재단	방통위	2019
안성영상미디어센터(가칭)	-	문화부	개관예정
양평영상미디어센터(가칭)	-	문화부	개관예정
포천영상미디어센터(가칭)	-	문화부	개관예정
용인영상미디어센터(가칭)	-	문화부	개관예정
경기학교미디어센터(가칭)	경기도교육청	교육부	개관예정

자료: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자료(온라인접근, 2021년 10월 1일,  
[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http://www.krmedia.org/pages/page_123.php))를 토대로 향후 개관예정 등 기타 자료는 연구자가  
업데이트하여 재구성

국내 대표적인 청소년미디어센터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기존의 지  
역영상미디어센터들과는 달리, 청소년만을 위한 미디어센터로 건립되었으며, 3개 곳의 경우에 청  
소년들의 영상미디어제작을 위한 설비 등을 갖추고 있다. 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 영상  
미디어센터 이외에도, 현재 청소년만을 위한 미디어센터가 소수이지만, 2000년 개관 이후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표 9〉 청소년미디어센터 현황

구분	지역	개관연도
청소년 미디어센터	서울시청소년미디어센터	• 2000년 개관 • 청소년 미디어 특성화 시설 • <a href="https://www.ssro.net/main/index.jsp">https://www.ssro.net/main/index.jsp</a>
	광명시청소년미디어센터	• 광명시청소년재단 청소년시설 • <a href="https://www.gmyouth.org/training_center/media.do">https://www.gmyouth.org/training_center/me dia.do</a>
	미추홀구 청소년 미디어센터	• 2003년 남구 청소년 미디어문화센터로 개관 • 영상미디어교육을 위해 조성

#### 4. 미디어로 청소년들이 만드는 파주

이처럼 청소년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과 관련한 정책 및 제도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디지털 전파시대 미래역량, 시민역량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의 사회적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내에서 청소년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여지는 교육부, 교육청 등의 여러 변화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미디어리터러시가 ‘디지털미디어’에만 제한되어있는 것도 아닐뿐더러, 종합적인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성을 가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설계되어야하며, 또한 실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일상속에서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참여와 실천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설립은 그간 파주 내 청소년시설들이 산발적이고, 이슈대응적으로 실천해 온 ‘청소년과 미디어’ 정책을 일관성있고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연구에 따르면, 재단의 방향성에 관한 제언으로 중장기 비전에 대한 논의의 전개한 바 있다(권일남 외, 2020, 250쪽~253쪽). 이에 따르면, 첫 번째로 COVID-19이후 청소년들의 새로운 역량 개발에 대한 과제로의 전환, 두 번째로, 재단의 허브기능 수행을 위한 자원발굴과 연계, 세 번째로, 청소년의 자율과 참여적 행동 보완을 위한 새로운 활동기회 부여를 언급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파주시청소년재단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디어와 관련한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고민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볼 때, COVID-19이후 청소년의 새로운 역량은 디지털 시민에게 필요한 미디어리터러시 역량을 위한 정책 발굴과 이를 위한 청소년들의 참여와 실천을 위한 제도, 정책, 그리고 재단이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미디어참여의 허브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성을 고민해볼 수 있다.

이런 고민들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파주시 청소년들의 미디어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부여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서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관점에서 몇 가지 미디어 정책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그림 3] 파주시청소년재단 미디어 &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정책 방향성

<p>①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청소년 주도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이용자 맞춤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체계 :</b> 청소년들 요구에 맞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li> <li>▶ <b>디지털 시민 역량 함양으로서 미디어리터러시 설계 :</b> 참여, 실천 소통, 협업 능력에 기반한 미디어교육 설계 소셜리빙랩 등 청소년 참여형 미디어프로젝트 설계</li> <li>▶ <b>디지털 기술을 통한 참여형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b> 사회를 바꾸는 미디어참여 프로젝트 기획 실천 기술참여를 통한 사회실천형 프로젝트 기획 실천</li> <li>▶ <b>인공지능 등 새로운 미디어기술에 대처하기 위한 시민역량 강화 :</b> 알고리즘, 인공지능, 프라이버시 등 이용자 대처역량 강화</li> </ul>
<p>② 다양성 &amp; 균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공동체 지향의 미디어 정책 :</b> 소외계층 등에 대한 고려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는 경험 지향 배리어프리 등의 긍정적 미디어 이용 경험 강화</li> <li>▶ <b>미디어리터러시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균형성 확보 :</b> 제작 편향 미디어교육을 비판적 이해, 소통, 윤리, 협업, 참여 등의 균형적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콘텐츠 개발 다양한 미디어 경험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설계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균형적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 기획</li> <li>▶ <b>청소년 시설/기관들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리모델링 :</b> 제작, 진로체험 이외에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역량 프레임 개발 파주시청소년재단 주도형 교육으로의 전환</li> <li>▶ <b>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매개자 교육 강화</b> 부모, 교사, 강사 등의 매개자 교육 강화</li> </ul>
<p>③ '파주청소년 미디어정책'의 정체성 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파주시 청소년 미디어 공간 확보 및 구축 :</b> 파주시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위한 공간 확보</li> <li>▶ <b>파주시 청소년 미디어경험을 공유할 안전한 플랫폼 구축 :</b> 안전하고 긍정적인 미디어경험을 위한 미디어플랫폼</li> <li>▶ <b>청소년 미디어정책을 위한 기획 및 연구역량 강화 :</b> 청소년의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한 역량 구축 연구 인력 확충 및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마련</li> <li>▶ <b>청소년관련 시설 및 기관들과의 공유/협력체계 구축 :</b> 파주 지역내 청소년 시설들과의 공유/협력체계 구축 지역별 센터의 교육콘텐츠들의 공유아카이브 필요</li> </ul>

## 참고문헌

- 강원도교육청(2020). 미래핵심역량을 위한 강원 디지털리터러시 교육 추진안  
 경기도교육청(2020). 2020 민주시민교육정책과 기본계획. 민주시민교육정책과.  
 경기도교육청(2020.07.15.),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안  
 관계부처합동(2020).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안).  
 광주광역시교육청(2021.02.26.),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권일남 외(2020). 파주시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파주시.  
 교육부(2018).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 교육부, 8.  
 김봉섭·김현철,박선아, 임상수(2017). 4차산업혁명시대, 지능정보사회의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탐색.  
 KERIS 이슈리포트 연구자료 RM 2017-6.  
 김양은(2018a), 국내미디어교육의 현황 및 미디어교육지원법, 서강대학교 포럼 발제문  
 김양은(2018b), 청소년의 유튜브경험과 미디어리터러시, 여성커뮤니케이션학회 가을철학술대회 발표문.  
 김양은(2020), 나는 디지털 시민인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시민총서 01.  
 김진숙(2020), 코로나19가 던진 교육혁신 방향과 과제, 서울교육, 240호  
 대전광역시교육청(2021.06.07.),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시행 2022. 3. 25.] [법률 제18459호, 2021. 9. 24., 제정]  
 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권인숙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07.14.)  
 박기범 (2014). 디지털 시대의 시민성 탐색. 한국초등교육 25(4), 33-46.  
 배상률 외(2020),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방안 연구 1 : 초등학생,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교육청(2021.03.05.), 디지털리터러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2021.09.02.), 학교 미디어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라남도교육청(2021.02.18.), 미디어정보식별교육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2021.04.30.),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충청남도교육청(2021.06.18.),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교육청(2021.01.06.), 학교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안  
 부산시교육청(2020). 2020년 기본업무계획. 부산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2020). 2020서울교육주요업무.  
 안정임, 김양은, 전경란, 최진호(2017). 지능정보사회에서의 미디어 리터러시 이슈 및 정책방안연구.  
 방송통신위원회.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와 교육 정책 및 실무 운영위원회 (CDPPE),  
<https://www.coe.int/en/web/digital-citizenship-education/home> (온라인접근, 2019년 11월30일)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http://www.krmedia.org/home.php> (온라인접근, 2021년 10월 1일)  
 정용찬(2021). 코로나, 미디어지형을 바꾸다. KISDI STAT Report, 21-08호, 7쪽  
 학교도서관 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 강득구 국회의원 대표발의, (2021.06.18.)  
 호주통신미디어위원회(ACMA), <https://esafety.gov.au/education-resources/classroom-resources/digital-citizenship> (온라인접근, 2019년 12월 3일)  
 Bennett, W. L., C. Wells & A. Rank (2008). "Young Citizen and Civic Learning: Two Paradigm of Citizenship in the Digital Age" A Report from the Civic Learning Online Project. July 2008.  
[www.engagedcitizen.org](http://www.engagedcitizen.org).  
 Hobbs, R. (2010).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A White Paper on the Digital and Media Literacy Recommendations of the Knight Commission on the Information Needs of Communities in a Democracy.  
 Jenkins, H., Clinton, K., Purushotma, R., Robison, A. J., & Weigel, M. (2009). Confronting the Challenges of Participatory Culture: Media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 MIT Press.  
 JISC(영국), <https://www.jisc.ac.uk/rd/projects/building-digital-capability> (2019년 11월30일)

청소년 참여

발제4

## 파주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한도희(청파청소년연구원 원장)

## 파주시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방안 모색

한도희 (청파청소년연구원 원장)

### 1. 들어가는 말

우리나라는 뒤늦은 민주공화정 정부수립, 일제강점기, 6.25 사변 등 특수한 역사적·사회문화적 배경으로 인하여 전반적인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나 권리 수준이 매우 미약한 상황이며, 특히 청소년들의 인권은 성인·여성·노동의 인권도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청소년의 인권은 후순위에 놓여 있다. 삶의 주체자가 아닌 미성숙한 존재로 관리·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더욱 다양한 인권 중 맨 뒷자리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성숙한 나라 건설 및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자신의 권리를 알고 찾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인권의 역사를 살펴볼 때 주어진 권리는 거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인간의 권리란 위에서 내려오고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가꾸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연하겠지만 이제까지 우리사회에서는 청소년 참여와 관련해서 ‘어떤 검증되지도 않은 해외 학자를 끌어와서는 「사다리」 등을 이야기하면서 높은 단계에 있다고 뺨을 치는 등(유엔에서 상도 받고?, ‘청소년참여’를 성과로 유엔 공공행정상 수상)’ 청소년의 인권을 형식적인 차원에서만 다루어왔고, 청소년 실질적인 삶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서야 서서히 인간의 기본권적 권리라는 기본에 충실한 청소년권리에 관심을 갖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지도자들의 노력을 통하여 부지불식간에 스스로의 자신의 권리

가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청소년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다.

청소년권리에 대한 정책적 역사는 다음과 같다. 변증의 논리 중 ‘양질전환’이 떠오른다. 청소년을 미래의 주역이 아니라 오늘의 주인이라 선언한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기본계획에서 문서로 명기되어 시작되어진 ‘청소년권리’라는 낯설고 소수 진보적인 식자층에만 어울릴 것 같았던 한 줄의 씨앗이, 이에 현장에 뿌려져 20년이 가까이 된 지금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용어로 탈바꿈되었고,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의 형이상학적인 머리로의 이해가 아닌 몸으로 말하는 시기가 되었다. 이에 대한 과정에 대하여 몇 개의 영역으로 간략한 평가를 더 하여 두서없이 설명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소귀의 성과는 하루아침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첫째, 토양작업의 일환으로 ‘조영승 교수, 최윤진 교수, 이봉철 교수, 천정웅 교수, 김영지 박사 등’의 노력으로 나름 청소년권리에 대한 학적 및 논리적 탐구로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으로는 10년 전까지 나름 몇몇 학자들에 의해 활발하게 움직이던 모습은 최근 소강상태에 들어섬에 따라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헌법과 국제법, 관련 역사에 대한 고찰만으로도 청소년권리 및 참여를 근거를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음에도 최근 검증되지 않는 해외의 학자(이론)들을 무분별하게 연결해 대는 모습은 우리의 청소년권리 증진의 방향을 혼란스럽게 하고 과거(원점:제2차 청소년기본계획 이전의 논의)로 돌아가게 하기도 한다. 더욱더 안타까운 사항은 청소년권리를 잊어버리고, 몇몇 학자와 연구기관으로부터 시작된 아동권리(아동권리규약)를 중심으로 청소년권리를 이해하고 현장을 해석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게 최근 현실이다. 요즘은 이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둘째, 제도적 장치로 청소년지도사 1급 자격 검정과정에 포함되어, 청소년권리가 실질적인 청소년 관련 학문의 한 영역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많은 청소년 관련 학과에서는 청소년권리(인권)를 개별과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관련 연구물이나 책들의 수준은 아직 많이 못 미치는 게 현실이다. 많은 대학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수준을 볼 때, 아동인권과 청소년인권을 구분하지 못한 채 지도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나아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참여 및 권리관련 연구물이 나오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실태조사 수준을 못 탈피하는 재탕 삼탕 수준에 초보적인 연구에 머물러 있다고 보여 진다.

**셋째, 나름 큰 제도적 성과로는 2004년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운영위원회’의 법조문화 이고, 2004년 청소년기본법상(2012년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개정을 통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관련 조문 이동) ‘청소년참여’에 대한 법조문화로 볼 수 있다.** 최근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참여위원회(2017년),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참여(2019) 관련 사항이 법조문화가 되기도 하였다. 이를 통

하여 제도적인 청소년참여 사업이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가 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국가 및 지자체는 관련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고, 일부 운영예산도 확보하여 지원하게 됨에 따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기본골격을 세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법제도는 잘 되어 있으나, 이를 수행하는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의 담당공무원(담당자)의 역량이 부족하여 정책 환경(조직, 인력, 예산 등)에 비하여 성과를 도출해 내고 있지 못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특히 청소년특별회의의 경우 2003년 처음 법조문화 할 당시의 내용을 현 정부 정책 주도로 바꾸다 보니 그 취지와 목적을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으며, 지자체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경우 대다수 그 근본 가치를 충족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이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더욱욱 심각한 상황이다.

**넷째, 나름 큰 성과로는 청소년수련시설을 기반으로 한 청소년활동 현장의 성숙을 들 수 있다.** 바로 청소년운영위원회 사업을 통한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의 성장을 들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목적이 지역사회 청소년의 행복증진이라는 것을 재인식하게 하였고, 청소년들은 청소년수련시설이 관장 및 지역 결정자들의 수혜물이 아닌 기본적 청소년권리의 일환임을 인식하고 이를 올바르게 지키고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주인의식을 찾아가고 있다. 나아가 최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청소년참여대회(유스아고라, 청소년정책토론회 등)을 진행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해당 지자체장 또는 지역 의회와 유기적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하여 지역을 변화시키는 우수한 사례 등을 보여주고도 있다.

이 시대의 청소년권리와 관련된 중점 과업은 청소년을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국민인 ‘오늘의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스스로의 삶에 대한 자율적 권리향유의 주체이자 저마다의 행복을 추구할 주체, 자신의 내제되어 있는 숨은 역량을 발현해야할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커다란 정책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은 아직은 시작단계로서 앞으로 청소년 스스로가 청소년권리를 인지하고 생애적인 권리임을 머리와 몸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제도적으로는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책 사업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글에서는 청소년인권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 매김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우선적으로 청소년인권의 개념과 역사적 흐름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청소년참여에 대한 현실태를 점검하여 보고, 마지막으로 파주시역의 청소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해보고자 한다.



## 2. 본론

### 제1절 청소년권리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

청소년권리의 역사를 살펴보았을 때 두 가지의 흐름으로 바라볼 수 있다. 한가지는 세계 인권 선언 같은 식의 선언과 규약적 논의를 하나를 들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들에 대한 논의이다.

#### 1) 국제 선언과 규약에 비춰본 청소년 권리의 진행

1차 세계대전을 통해 드러난 아동들의 피해는, 1924년의 제네바 선언을 통하여 국제 사회가 ‘아동권리’를 하나의 주제로 인식했음을 최초로 보여주었다.

이후 2차 세계대전 통해 인류가 경험한 참상 속에서 아동이나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입은 피해가 컸던 배경을 가지고 ‘1948년 아동권리 선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제네바 선언’과 ‘1948년 아동권리선언’은 선언으로서 밖에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다. 또한, 이들 선언의 밑바닥에 깔린 핵심적인 관점은 ‘제네바 선언’에서 보여지듯이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우선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20세기 전반부의 지배적인 아동관을 반영하고 있다. 즉,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여러 면에서 약한 존재이니까 보호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바탕은 10대 원칙인 ‘1959년 아동권리선언’을 만들 수 있게 하였다. 이 선언에서, 아동과 관련된 ‘시민권’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라 볼 수 있는 ‘이름과 국적에 대한 권리’가 추가됨으로써 해서 새로운 전환을 맞게 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를 통해 북부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권리를 둘러싸고 발전적이고 빠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보호’를 넘어서서 ‘아동의 권리’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었고, ‘권리’에 초점이 맞춰지기 시작하였다. 또한, 1979년 ‘국제아동의 해’의 선포로 인해 아동 문제에 관한 방대한 양의 정보가 유포되고 출판되기 시작하면서, 아동의 열악한 환경에 대한 문제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선언을 구속력 있는 조약으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게 하였다. 이후,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는 ‘유엔 아동권리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되었다. 전문과 총 54개 조문으로 구성된 본 협약은 아동의 권리에 관하여 대단히 포괄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다. 생명권·국적권·신분보존권·의사표시권, 사상 양심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권리 등 시민적 권리는 물론, 가족동거권, 양육을 받을 권리, 건강 의료에 대한 권리, 사회보장, 교육권, 장애아동의 보호, 문화 활동권 등의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담고 있으며, 마약, 인신매매, 무력분쟁으로부터의 보호도 규정하고 있다. 통상 기존의 각국 법률이 성인의 시작에서 아동을 단순히 수혜자로만 취급하고 있는데 비하여 본 협약은 아동

을 하나의 인간으로서 인권의 적극적 향유주체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 협약은 국제법으로서, 1995년 12월 31일에 조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190개국에 이르는 전 세계의 법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청소년을 포함한 아동권리의 측면으로 청소년권리에 접근하는 데 한계에 부딪히자, 유엔에서는 청소년권리를 구분하여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유엔은 청소년을 15세에서 24세까지의 연령으로 정의하는데 청소년은 세계 인구의 18%인 12억에 해당하며, 개발도상국에 살고있는 87%의 청소년은 자원, 건강관리, 교육, 훈련, 고용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제한적 접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한다. 이를 위해 유엔 회원국들은 청소년이 개발과 긍정적 사회변화, 기술 혁신 등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임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의 이상, 에너지, 그리고 비전은 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필수적이며, 청소년은 수동적 수혜자가 아니라 변화를 위한 능동적 행위자임을 확정하였다. 더하여 청소년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창조적으로 사회의 많은 도전적 이슈들을 해결하며 발전에 공헌해 왔으며, 청소년의 노력은 또래 교육과 환경보호를 통해 빈곤 및 기아와 싸우고 에이즈 질병을 막는데 기여해 왔다. 청소년은 또한 다양한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대화, 이해, 그리고 존중을 고무시키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해왔다.

청소년은 종종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라이프스타일을 실천하고, 모바일 기기와 온라인 사회 관계망 활용 등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혁신적 활용을 촉진하며 통합적 사회발전을 위해 틈새를 연결하는 등 선도적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사회(community)와 국가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발전을 위한 그들의 공헌은 인정되고 격려되어야 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이를 명심하고, 이러한 도전들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청소년의 잠재력이 어떻게 현재의 사회문화적 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지를 인식하면서 ‘세계 청소년의 해(1985, 2010)’를 선포하였다.

1985년 유엔은 제1회 ‘세계 청소년의 해(참여, 개발, 평화)’를 기념하였고, 총회는 1995년 이의 10주년 기념으로 청소년의 상황 개선을 위한 국가적 실천과 국제적 지원을 위한 정책 틀과 가이드라인인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World Programme of Action for Youth to the Year 2000 and Beyond:WPAY)<sup>1)</sup>을 채택하였다. 오늘날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은 청소년 개발에 중

1)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의 15개 우선 영역은 교육, 고용, 기아와 빈곤, 건강, 환경, 약물남용, 청소년비행, 여가, 소년과 젊은여성, 청소년참여, 세계화, 정보통신기술, HIV/AIDS, 갈등예방, 세대간 관계 등이다. 청소년관련 유엔 프로그램은 정부 간 정책형성 지원, 분석적 연구 수행, 그리고 청소년 개발에서 유엔 활동의 효과성 증대 등을 포함하여 청소년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분야에서 국가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이며 적극적인 청소년 참여가 가능하도록 양적·질적 기회를 증대시키기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2009년 12월, 유엔 총회는 2010년 8월 12일부터 2011년 8월 11일까지를 ‘대화와 상호이해(dialogue and mutual understanding)’를 주제로 한 ‘세계 청소년의 해’로 선포하는 결의안 64/134를 채택하여, 제2회 ‘세계 청소년의 해’<sup>2)</sup>를 개최하였다.

#### ※ 세계 청소년의 날(International Youth Day: IYD)

유엔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은 매년 8월 12일이다. 1999년 유엔총회는 결의안 54/120을 통해 제1회 세계청소년장관회의(World Conference of Ministers Responsible for Youth)가 지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을 승인하였다.

1998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개최된 세계청소년장관회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주제는 ‘사회의 모든 수준과 영역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것이었다. 이 회의에서 청소년은 상상력과 이상과 무한한 에너지와 비전을 지닌 존재로서 사회의 사회문화경제·기술적 발전을 지속하는데 핵심적 존재로 규정되었다. 세계청소년장관회의는 각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청소년에 대한 관심제고를 위해 ‘세계 청소년의 날’을 선포하여 청소년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촉구하였다.

‘세계 청소년의 날’에는 세계 각지에서 이를 기념하는 다양한 활동이 펼쳐지는데 유엔은 기념행사 진행을 위한 전략으로 팀 구성하기, 행사 조직하기, 기념하기, 행동하기 등의 과정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의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 주제는 다음과 같다. : 제1회 세계 청소년의 날 기념(2000), 건강과 고용(2001), 지속가능한 발전(2002), 청소년 노동(2003), 세대(2004), 세계청소년행동프로그램(2005), 빈곤(2006), 청소년참여(2007), 기후변화(2008), 지속가능성(2009), 대화와 상호이해(2010).

이러한 국제 선언과 규약을 통하여 국제아동의 연령규정의 불명확함으로 아동의 권리와 혼용되어 사용된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진행 과정을 살펴본 결과 청소년의 인권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야 인권의 관심의 주변 문제에서 핵심문제로 서서히 대두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국제아동의 연령은 18세 이하의 모든 대상을 말하며, 국제청소년 연령은 15세에서 24세 까지이며,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서의 청소년은 9~24세임)

#### 2)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청소년

‘아동기’나 ‘청소년기’를 생애 주기의 한 독자적인 범주로 인식하게 된 것은 근대에 들어서이

다. 더불어 청소년의 인권을 말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조금씩 담론화되다가 최근에 와서는 화두로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생애주기를 성인기, 청소년기, 아동기로 나누어 범주화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자본주의화 과정에서이다. 성인의 축소판으로 인지되었던 아이들은 ‘아동’이라는 독자적인 범주로 묶어 내고 미성년인 ‘아동’의 세상과 성년인 ‘성인’의 세상을 분리시키게 된 것은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현대 국가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의 결과물로서, 산업인력으로 빠져나간 부모들을 대신하여 자녀를 맞아줄 수 있는 장이 요구되었고, 이와 함께 산업화에서 전문인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대중교육의 장인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자본주의화가 진행되면서 학교에 다니는 기간이 길어졌고 아동기 역시 길어지게 되었다. 사회가 급격하게 분화되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동과 어른의 생활권은 점점 더 분리되어 갔고, 이에 따라 ‘미성년’으로 범주화된 10대 아이들은 자기를 또래의 세상을 만들어갔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 있거나, 학교에 다니는 사람은 모두 일방적으로 미성년자로 간주하면서 관리되었는데, 그들의 보호와 통제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 ‘아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유 없는 반항으로 잘 알려진 10대의 반란에 시작을 알리는 것이었다. 10대들은 부모와 학교 외부에서 많은 정보와 자극을 받게 되고, 그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가 반드시 옳거나 정당한 것만은 아님을 알게 된다. 10대들은 ‘기성세대’의 규제를 부당하다고 느끼면서 자기들만의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갔다. 신세대는 보수적인 기성세대 문화에 등을 돌리면서 보다 진보적인 세계관과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고자 했다. 청소년들은 이 시기를 통해 아동과 자신들을 분리시키고, 또 기성 세대와 자신을 분리시키면서 독자적인 문화 공간을 마련하게 되고, 성인/아동, 성년/미성년의 경직된 이분법을 깨고 준 시민으로서 입지를 굳히려 하였다. 이러한 서구 청소년들의 움직임은 기성세대와 스스로를 구분하면서 근대성의 새로운 가치를 심어 가는 과정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은 학교와 가족 밖에서 상당한 발언권, 참정권, 시민권을 확보하려 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미국, 프랑스, 서독, 일본, 영국 등 소위 선진국들은 1960년대에 극심한 학원소요를 맞이하게 되었다. 1964년 미국 UC 버클리대 학생들이 월남전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반대하는 격렬한 반전시위를 벌인 것이 도화선이 되어 반전 학생데모가 미국 전역으로 번져갔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학원소요는 유럽 대륙에까지 그 영향을 미쳤다. 인권과 자유, 평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국가 미국에서도 당시 주 방위군을 동원, 학생데모진압에 초 강경책을 사용하여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그리고 ‘68년 5월 운동’으로 불리워지고 있는 프랑스의 학생운동은 노동자의 총파업, 좌익사상 주의자들의 득세 등으로 프랑스 전체가 극도로 혼란에 빠졌으며 한때는 프랑스 국가 전체가 올 스톱되는 마비상태에 이르기도 했다. 그리고 이웃 일본은 전후 25년 동안 계속된 좌경화 학생들이 중심이 된 전학련 주축의 학생소요로 사회의 기둥이 흔들릴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시위가 극심한 대학에 대하여는 폐교조치까지 내릴 수 있는 5년

2) 제2회 ‘세계 청소년의 해 행사’ : 제5회 세계 청소년의회(이스탄불, 7.31-8.13), 세계 청소년회의(멕시코, 8.24-27), 제1회 청소년올림픽게임(싱가포르, 8.14-26) 개최됨

시한의 ‘대학의 운영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제정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1970년을 고비로 학원이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 같은 학생운동의 열풍은 1970년 초부터 잠잠하기 시작하여 오늘날 선진국의 청소년들은 시민적 자유권과 참정권에 있어서 더 이상 화두로 대두시키지 못하게 되었다. 1960년대 서구 청소년들 사이에 불어 닳았던 청소년 사회권 확보와 참정권 획득의 사상은 1980년대에 들어서 퇴조현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체제내의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는 ‘신보수주의’ 물결이 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인에 대한 자유권적인 운동은 쇠퇴하게 되었고, 대신 갈등적 요소를 문화적으로 풀어가려는 시도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1970년대 히피 운동과 반문화 운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이 일으킨 하위문화 운동은 사실상 ‘문화 혁명’적 성격을 띠게 된다. 근대사회는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자유로운 유예기를 허용하면서 그들을 통제해 왔는데, 자본주의가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 그들의 ‘허용된 일탈’이 도를 넘어서 저항 문화화하게 되었고, 기존의 문화적 해체와 다원화된 새로운 문화적 공간과 범주를 만들어 가게 되었다. 결국, 청소년들은 집단적 문화와 정치적 성격을 배제하고, 개인적이고 다원적인 문화를 추구해 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포스트 모던의 문화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와같이 청소년은 지금까지 자신의 권리를 성인들에게 학생운동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해결책으로서 반영되지 못하였다. 청소년 운동의 실패는 결국 청소년비행, 일탈 등의 문제와 청소년문화의 형태로 대체되기 시작하였다. 청소년이 사회문제화되기 시작하자, 기존의 정부와 성인들은 문제의 치유책으로서 청소년의 사회 복지권적 측면에서 대중 학교 제도를 축으로 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수혜 등 대비책을 준비하였으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청소년에게 있어 창조적이고, 자발적 능력을 가지게 하는 어느 것에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는 우선 청소년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데에 있고, 두 번째는 청소년에 관련된 문제 원인 발굴에 있어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과 역사의 변화 안에서의 원인을 찾아낸 후 처방책을 제시하여야 했으나, 보이는 현상만의 문제 속에서 문제해결의 처방책을 간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에서 청소년 인권의 흐름을 두 가지 방향에서 살펴보았다. 처음에는 국제적 선언과 협약으로서의 청소년 인권의 확장이었고, 다음에는 청소년 스스로의 문제의식을 통한 성인사회에 대한 반향과 이탈로서의 자기표현과 권리획득 운동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적 선언 및 법적인 근거 마련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많은 발전을 보여주고 있으나, 문제는 청소년 스스로의 참여에 대한 인식과 노력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초기문제를 그대로 남겨둔 채 숙제로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현 우리의 주요과제는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교육과 참여의 실천)를 통해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이를 서서히 확장하는 초기 단계에 있다고 보여진다.

## 제2절 대한민국 청소년참여 기반

### 가. 청소년권리 관련 법령 분석

우리나라에는 청소년권리에 관한 독립된 법률은 없으나 국가 최고상위법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에서 청소년의 인권에 관해서도 특별조항을 두고 있고, 청소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각종 법률에서는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 1) 헌법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제10조부터 제39조에 걸쳐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일부 내용인 선거권(18세 선거권), 근로권 등 제외하고는 청소년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

#### 2) 청소년 관련법 등

청소년 관련법(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은 개별 법률마다 조문화하여 청소년권리를 내세우지 않더라도 청소년의 기본권적인 권리에 대한 사항은 그 법을 제정하고 운영하는 측면에서 기본이념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법률들 가운데 청소년의 권리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활동 진흥법이다.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기본적 권리 및 책임, 구체적인 청소년 참여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이념을 통해서 청소년기 본법과 청소년관련법을 제정하고 운영할 시 기본적으로 내재하여야 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①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법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종합적 청소년육성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추진방향으로 한다. 1. 청소년의 참여보장, 2.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 삶의 실현, 3. 청소년의 성장여건과 사회환경의 개선, 4. 민주·복지·통일조국에 대비하는 청소년의 자질향상

청소년기본법 제5조2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조문을 통해서 청소년의 사회구성원 및 국민으로서의 구체적 참여방안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로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의 자치권확대” 조항은 2012년 초 청소년복지지원법 전면 개정(참여 및 인권조항을 기본권으로 파악하고 청소년 기본권으로 조정, 실질적 복지 관련 사업 중심의 법조문으로 재구성)과 연동하여 청소년기본법으로 조문 전체가 보완 및 이관되었다. 최근 방향만 제시되고 명확한 근거가 없었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2017년 법조문화가 되었고,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었다. 더하여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2019년 하반기 시행)되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은 청소년기본법의 청소년 기본권적인 이념과 다양한 책임을 밑바탕에 두고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수련활동·문화활동·교류활동의 활성화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참여 관련 조항으로는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이다. 내용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 운영 단체는 청소년 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 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나.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6차) 및 포용국가청소년정책 관련 분석

정부 차원의 청소년참여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자료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6차)와 포용국가청소년정책(여가부, 2020)을 들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 볼 때 청소년들의 실제 삶과 연관 짓기에는 아직 어려운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청소년참여의 원칙적인 방향 제시, 사업으로 볼 때 정책 결정 및 운영기관 중심의 가시적 또는 선언적 수준으로 보여진다.

#### 1)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심의확정 2018.3.6 / 추진 기간 2018~2022)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를 비전으로 2018년부터 5개년 동안 추진한다. 본 기본계획의 비전은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이며, 정책 목적은 4가지로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2)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3)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4) 청소년정책 추진 체계 혁신으로 설정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주도의 지원적·협업적 청소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중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의 내용과 방향은 다음과 같다.

《 제6차 기본계획 수립 기본방향(중) 참여 방향 》

구분	내용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람 중심의 국정 기조를 반영하여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적 기반 강화</li> <li>*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도전하는 활동을 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적 여건 마련</li> </ul>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정책목표에서는 3가지 중점과제 ‘청소년 참여 확대’, ‘청소년 권리 증진 기반 조성’, ‘청소년 민주시민 성장지원’을 설정하고 있고,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사항으로 . ‘청소년 참여 확대’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청소년의 참여 방식의 다변화’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아홉 분	사업 내용
지역 사회에서의 청소년 참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제도의 공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시·도 및 시·군·구가 청소년 참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컨설팅, 운영모델 제공, 모니터링 등 체계적 구성</li> <li>* 청소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b>청소년의회</b> 등 설치·운영에 관한 <b>조례안 보급</b></li> <li>* 청소년 <b>참여예산제 운영 매뉴얼 보급</b>(시·도 → 시·군·구 단계적 확대)</li> </ul> </li> <li>- 청소년동아리·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지역 청소년문화 활성화</li> <li>* 사회참여, 자기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b>자기주도형 자원봉사활동 모델 확산</b></li> <li>* 지역사회 기업, 교육, 자원활동, 공공부문의 기관들에게 청소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li> </ul> </li> <li>- 청소년 참여 내실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모방식, 직접선거, 기관추천 등 청소년 참여기구 위원 구성을 다원화함으로써 청소년의 대표성 강화</li> <li>* 취약계층 청소년이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참여한다는 원칙 제시</li> <li>* 청소년이 스스로 실천하고, 과정을 공유하는 활동 지원 (참여활동과정 : 문제발견→해결방법조사→대안 제시→실천 및 공유)</li> </ul> </li> </ul>
학교에서의 참여 및 권익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 자치활동 및 교육 정책에 대한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회·학급회의 참여기를 확대하고 학생자치활동 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확대</li> <li>* <b>학생 대표의 학교운영위원회 참관 및 의견제언 등 학교 공동의 의사결정과정에 학생 참여보장</b></li> <li>* 청소년 참여기구 등을 통해 교육 정책에 대한 청소년 의견수렴 강화</li> </ul> </li> <li>- 학생자치법정 운영 확대 : 교사·학생 대상 워크숍 개최, 매뉴얼, 법복 및 전문지도 강사 지원을 통한 <b>학생자치법정(teen court) 확대</b></li> </ul>
청소년의 참여 방식의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오프라인 청소년 의견수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청소년 의견 상시 수렴 통로 마련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참여 포털 개편)</li> <li>* <b>청소년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의견을 나누는 권역별 청소년 원탁회의, 청소년 목소리 페스티벌(가칭) 개최</b></li> </ul> </li> <li>-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 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에 청소년 위원 위촉 권고</b>(각 부처, 지자체)</li> <li>*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하는 정책제안의 적극적 검토·수용</li> <li>* 청소년의 정치참여 수준과 효용에 대한 사회적 논의 등</li> </ul> </li> <li>- 일상생활에서의 참여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참여 프로젝트 공모·지원 확대 추진</li> <li>* 청소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활동 전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지도자들은 이를 지원하는 데 역량 집중</li> </ul> </li> </ul>

## 2) 포용국가 청소년정책 (성장과 체험의 주제로, 2020.5.11.)

문재인 정부의 핵심정책 사항인 포용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2020.5월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이 발표되었다. 비전으로는 새로운 100년, 이제는 청소년이다!. 이고, 4대 추진 전략, 12대 핵심추진 과제, 30개 세부과제로 구성되었다. 이중 청소년참여와 관련된 사항으로는 아래와 같다.

### 첫째, 청소년이 중심이 되는 정책으로 전환

- 청소년 정책 참여 활성화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모델(개발, 확산/ 시범사업운영)
  - 청소년특별회의와 청소년정책위원회간 연계 강화
  - ‘한-아세한청소년 서밋’개최 (우리의 우수한 청소년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

정부(여성가족부)가 발표한 포용국가 청소년정책에서는 청소년참여에 대한 기존 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6차)의 내용에도 못 미치는 퇴보한 형태의 청소년 참여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선전 및 행사성 사업인 ‘한-아세한 청소년 서밋’(우리의 우수한 청소년정책을 전 세계에 확산)이라는 이벤트성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포용국가청소년정책을 볼 때, 정부(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법령에 근거한 기본적인 사항(목적, 이념, 청소년참여 및 책임, 홍보 등)을 담아내고 있지 못한 정책개발 및 운영 사항을 보여주고 있다.

### 다. 최근 청소년참여(청소년정치참여) 관련된 사항

청소년정치 참여는 다양한 청소년단체 및 시민단체 등을 통해서 오랫동안 진행되어져 왔다. 그 결과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 조정되어 청소년들 참정권 범위가 확대되기도 하였다.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정치참여 관련 국회(지방의회) 등 차원의 시도 및 경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청소년 선거참여 연령 확대(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연령 18세로 하향) 되었다.
- \* 이에 21대 국회의원선거(2020년 4월)에 고3 청소년(생일이 지난)이 처음으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게 되었다.

- 장경태 국회의원이 발의하여 21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사다리 4법(발의: 2020.8)을 소개하고자 한다.

\* 취지: 지난해 만18세 선거연령 하향으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의 첫걸음을 떼었음. 이제 한발 더 나아가 만16세 이상 청소년을 민주시민으로 인정하고, 이에 맞는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데 기여해야 함. 이에 청소년 스스로 자신과 관련 있는 사안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고자 함

\* 개정안

법안명	내용
「정당법」	- 당원 가입 연령 하향: 정당의 당원 가입 <b>연령을 만16세</b> 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 도모
「지방자치법」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권자 연령 하향: 지자체의 조례제정과 개폐 청구 권한의 <b>연령을 만16세</b> 로 하향하여 주민의 범위 확대하고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에 기여
「지방교육자치법」	-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하향: 교육감 선거권 부여 <b>연령을 만16세 이상</b> 으로 하향하여 교육정책이나 학교운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가 교육감 선거에 참여
「초·중등교육법」	- 학생의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추가

향후 청소년정치 참여의 방향은 우선적으로 선거권 18세 하향에 따른 관계된 법령정비를 통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18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그 권리를 보장받게 하는데 관심을 갖고, 일관성있게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 당사자와 관련된 정책 및 정치 사항에 있어서는 어른들이 대리결정 형태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라. 파주 청소년참여 사업(정책) 현황 및 진단

청소년 참여의 기본, 삶의 터전, 실천현장인 파주시의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알아보고 진단해 보고자 한다. 참고로 파주시청소년재단이 금년 출범하여, 기존의 개별 시설 및 기관별로 수행해 오던 모든 것들을 체계성있게 재구성하고 있는 단계로 보여진다. 아마도 금년보다도 내년이후 전반적인 모든 사항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계획과 사업운영을 볼 때, 기본적인 청소년운영위원회, 정책토론회, 기타 기관별 참여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인 기관의 비전, 미션, 목적 등을 통해 볼 때도, 청소년 기

본법을 통해서 제시된 기본 이념적 측면에서의 청소년참여에 대한 사항은 다소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마도 차기 연도부터는 재단 차원에서 보안을 통해서 제대로 된 방향성을 잡으리라 판단된다.

#### 1) 파주시청소년재단 정책기획과

- 미션: 청소년 성장, 청소년 행복, 시민과 함께하는 청소년재단
- 비전: 자연과 평화, 청소년들의 행복성장도시 파주
- 핵심가치: 자연, 성장, 행복
- 운영목표: 청소년 참여 및 미래역량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자립 및 보호지원강화, 지역협력 및 상생 시스템 구축
- 청소년사업: 파주시 청소년 정책포럼, 파주시 청소년 기초조사

#### 2) 운정청소년문화의집

- 핵심가치: 자연, 성장, 행복, 공유와 창의, 소통과 공감, 개인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하는 기관
- 청소년사업: 정책토론회, 청소년운영위원회, 공정정당(공정무역):청소년시민역량 제고

#### 3) 문산청소년문화의집

- 미션: 청소년이 주인이 되는 놀이터
- 비전: 만남과 소통, 문화, 교육, 특성화, 네트워크
- 핵심가치: 진실한 행복, 희망찬 도전, 함께하는 우리, 행복한 성장
- 운영목표: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와 미래역량 증진, 청소년 주도의 다양한 활동 확대 운영, 청소년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자립 및 보호 지원강화, 지역과의 연대와 상생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청소년사업: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자치기구

#### 4) 금촌청소년문화의집

- 미션: 존중, 행복, 성장하는 금촌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 청소년 활동의 메카
- 비전: 평화로운 미래! 마을과 소통하는 청소년
- 핵심가치: 평화, 소통, 미래, 미래 확장성, 상호 호완성, 미래 지향성
- 운영목표: 평화감수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특성화 사업 전개, 지역과 소통하는 청소년 플랫폼, 미래를 이끌어가는 창의인재 양성
- 청소년사업: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운영위원회

5) 교하청소년문화의집

- 청소년사업 : 청소년정책토론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참여예산제

6) 대표 참여사업 : 2021 파주시 청소년 정책토론회

- 상상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13가지 제안!

구분	기관	제안내용
1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파주시 청소년 조례 ‘다시 탄생하라’ (경기도 31시군 비교)
2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 생존자판기 설치
3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을 위한 공간
4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쉼터 설치 (가정밖 청소년에게도 집이 필요해요)
5	문산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을 위한 자격증 비용 환급제도
6	파주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코로나 19 방역용품
7	운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청소년의,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정책
8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이전 및 개선에 관한 제안
9	파주시 청소년참여예산위원회	청소년들의 진로 관련 문제해결 활동지원
10	파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및 1인 미디어 실습교실 제안
11	금촌청소년문화의집 대학생서포터즈 너와나와우리들이	고3에게도 진로의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3에게 진로체험(교육)의 기회를)
12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철학적 교류집단상담 프로그램 및 후속 에세이 쓰기활동 시행정책
13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경기도 지역 검정고시 고사장 확대 제안

3. 마무리 글(파주시 청소년 참여를 위한 제안)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그 기반(법제도) 틀은 잘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이는 껍데기일 뿐, 형식적으로는 잘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소년의 행복의 질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그것이 허구인 것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전 세계 청소년 자살률 1위, 우울증 등 심리적 미약 청소년 만연 등을 통해 볼 때, 청소년 행복과 참여라는 용어가 어색하기만 실정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우리의 소중한 청소년을 살려내야 하는, 생각을 불어 넣어주어야 하는)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 주체는 중앙 정부, 전문가도 아니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당사자인 지역사회의 청소년! 청소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고 나아가 행복도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까지 이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 방향이 맞다고 한다면, 이제 지역사회와 전문가 들은 청소년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참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편적 참여기회를 줄 수 있게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이제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출범하고 새 옷을 멋지게 갈아입고, 출발하는 파주시청소년재단 및 관련 기관, 파주시 함께 힘을 합하여 추진해야 할 청소년참여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 하고 한다.

1. 보편화된 청소년 참여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 파주청소년재단의 기본적 설립목적 및 운영 이념이, 지역의 청소년참여와 참여를 통한 행복이 되어야 함

- 대한민국의 운영시스템(민주공화국), 대통령중심제, 법률주의, 지방자치 등의 이해 속에서 청소년정치참여의 의의와 역할이 어떤 것인지가 기본적 항시 교육시스템
- 초등, 중등, 고등, 대학생별 다양한 청소년참여 교육 및 연수 등 주기적 시행
- \* 파주지역의 역사 및 지리, 문화 등 이해도 함께

○ 청소년참여가 아동 참여와 다른 점은 책무(책임)에 있음. 청소년참여는 책임이 따름. 이에 대한 가정, 시설, 학교, 지역사회 차원의 그 책임이 무엇인지 청소년 스스로 파악하고, 책임을 수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임

- 진학과 입시를 핑계로, 모든 것으로부터 유예받는 청소년기를 탈피, 지역사회 주인의 한 사람인 청소년이 해야 할 것을 스스로 찾고 마땅해하게 해야 함

- 이것이 되어야, 지역인으로서의 존재감 확보가 되며, 나아가 지역의 청소년 정치참여로 발전될 수 있음

#### ○ 지구촌 세계인으로 호흡

- 세계 빈곤 및 식량, 인권 문제 참여
- 지구촌 환경 문제 참여

## 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시스템 구축

#### ○ 지역사회 차원의 단계별 참여 시스템 구축

(지자체, 수련시설(단체), 학교 중심이 아닌, 지역사회 및 영역으로 이해할 필요)

- 청소년참여위원회: 수련관 및 문화의집 운영위원회 등 참여활동에 성과 있는 위원 중 추천
- 수련관 청소년운영위원회(시군구): 지역 청소년문화의집 또는 동아리 연합체, 각급 학교대표 중에서 추천

-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읍면동, 마을): 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봉사단체, 지역 학교 등에서 추천

#### ○ 단계별 실생활 청소년 참여 제도 구축

- 기초 마을 단위: 청소년참여 거리 및 책무 (겨울 눈 치우기, 우리 동네 대청소 등)
- 동단위: 동장 회의 참석, 동 축제 기획 참여 등(동차원의 다양한 봉사활동 협력 등)
- 시단위: 시장연석회의 참석, 시의장회의 참석 등(청소년 관련 시정정책 참여, 시 청소년 및 시민축제 공동기획 등)
- \* 시의회 개최 시 청소년참여, 시장 청소년 관련 정책 발표 시 청소년 의견수렴 및 참여

#### ○ 혁신적 제안

- 파주시청 내 시장집무실 근처, 파주시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실 마련(오픈)
- 파주시청소년재단 이사장실 옆, 파주시청소년대표실 공간 마련(제공)

## 3. 파주 청소년 정치참여의 장 오픈

#### ○ 연령별(초·중·고: 발달단계고려)에 맞는 지역사회 차원의 지역 청소년정치 참여 방법 마련

- 초기 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중기청소년(중·고)의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후기청소년(청년, 대학생)의 정치참여(영역과 방법)

#### ○ 지역정치인, 정치집단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 파주시의회, 청소년비례대표제 도입

(일정 부분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 당당한 지역 사회구성원으로 지역 정치의 지분을 가지고 참여

#### ○ 파주(국가, 세계) 지역 미래 정치 리더 양성 시민 아카데미 운영

- 초·중·고·대 구분 아카데미

- 연령통합 시민 아카데미 운영

- \* 파주시의회(청소년 대표사업) 추진, 대한민국 명품 청소년정치아카데미 추진

## 4. 청소년참여를 위한 지역사회 다양한 연대기관 및 협력추진

- 지자체, 지역 의회, 지역선관위 등과 기본적 연계 협력 구축

- 지역 건강한 시민단체(노인, 장애 등) 및 봉사단체와의 연계 협력 구축

- 전국적인 청소년시민단체, 청소년단체 등과의 연기협력 구축(정보 등 공유)

- 청소년참여(정치참여) 이슈를 공유하고, 운동적 참여의 연대 구축 등

## 5. 청소년참여 수준과 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청소년옴브즈맨(퍼슨)<sup>3)</sup> 제도 운용

- 가장 중요한 것은, 파주시 청소년참여를 기초부터 청소년참여 완성까지 지지하고, 이끌어 줄 전문가가 필요함 (파주청소년옴브즈맨 제도 도입)

- 파주시청소년재단 또는 파주시(파주시의회)에서 청소년옴브즈맨(청소년참여전문가: 비상근도 상관없음) 채용 운영 필요함

- \* 자격 : 파주시장, 파주시의장, 청소년재단 대표와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및 역량보유

3) 잘못된 행정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이 억울하게 당할 수 있는 사안을 복잡한 절차나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여 줌으로써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 보호를 우선하는 민의제도. 옴브즈맨이란 스웨덴어로 대표자, 대리인, 변호인, 후견인이라는 뜻이고, 사전에는 민원조정관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김인설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문화예술분야를 중심으로

김인설(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공연예술문화학과 교수)

### 1. 들어가며

한국의 청소년 교육 환경에 ‘문화와 예술’은 어른들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의 결과가 가장 불일치하는 분야 중 하나다. 문화예술 활동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그리고 미적 감각을 키우는데 매우 가치 있는 분야라는데 대부분 어른들은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가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은 점차 ‘가치는 있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분야’로 밀려나가기 시작한다. 이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은 창의성, 인성 그리고 감성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중요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식되어왔지만, 실제로 교과목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보다는 ‘덜 중요한 과목’으로 치부되어왔다. 다시 말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에 대한 ‘가치’는 인정하되, 우리 현실에서는 ‘사실’로는 반영되어 오지 않았다. 현실에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은 인성교육, 시민교육, 창의교육과 함께 중요한 사항으로 언론과 정책적 담론을 통해 조명되어왔을 뿐, 실제로는 방과 후 과목이나 주 5일 수업제의 전면 실시와 함께 건전한 여가활동 정도로만 치부되어온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 Ken Robinson은 전 세계 교육시스템의 획일적인 과목 구성과 과목 쏠림 현상에 대해 지적하며, 창의성을 말살하고 있는 현실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그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화(evolution)가 아닌 전면적인 개혁(revolution)을 통한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obinson, 2010). 실제로, 프랑스는 이러한 공교육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1983년 교육부와 문화부처 간 협업을 통해 초·중등학교에 대규모 문화예술교육을 시행했다. 목표는 모든 학생에게 문화예술교육 및 활동의 기회를 평등하게 부여하여, 이성과 감성의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는 데 있었다. 이후 5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된 정책은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예술가들을 연계하는 협력기반을 형성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이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다.

청소년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에 대한 국내외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의 생각은 어떤지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실마리로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설문조사의 결과는 어른들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의 관점에서 볼 때,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이들의 가치판단과 사실판단은 일치성을 보여준다. 특히 이들 중 청소년관련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 활동 영역에서 문화예술 활동의 중요도가 높게 평가된 것은 주목할 만한 사항이다.<sup>1)</sup> 실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한 과거의 사실과 이에 대한 중요도가 일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들의 삶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파주시청소년재단은 파주시 청소년들에게 어떤 문화예술교육과 활동을 제공해야 할까?

## 2. 파주시 청소년들의 문화지형도와 미래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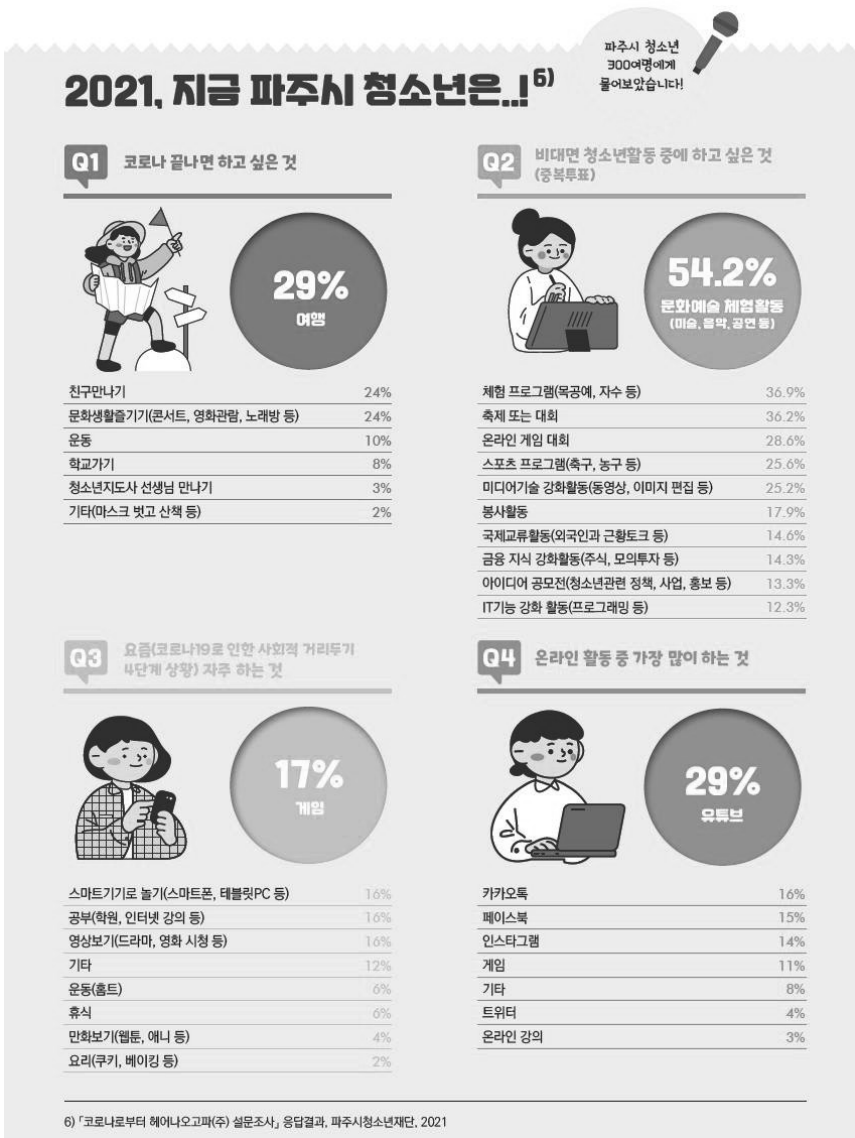
파주시 청소년들의 문화지형도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다만,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물리적 환경을 우선 살펴보면 파주시 내에서도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시로 파주시 청소년재단, 교하청소년문화의집,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운정청소년문화의집,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등 6개의 시설이 운집되어 있다<sup>2)</sup>.



〈그림1〉 파주시 청소년재단 시설현황

1)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계획 수립용역 보고서 (2020)  
2) 파주시 청소년 정책토론회 자료집(2021)

이러한 지리적 불균형은 인구의 밀집도와 더불어 청소년 인구를 반영한 사항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성인에 비해 이동 거리에 제약이 있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문화적 불균형에 대한 고려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전략에 대한 제시가 어찌면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힘써야 할 우선 과제일 수도 있을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그림2〉 파주시 청소년의 현황과 미래 희망활동

지리적, 물리적인 과제 외에도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2021년 300여 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그림2〉), 코로나가 끝나면 이들이 가장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는 여행(29%), 2순위는 문화생활 즐기(24%)와 친구 만나기(24%)로 나타났다. 이들의 문화적 욕구를 더욱 강하게 반영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이기도 한 위드코로나 시대에 희망하는 비대면 청소년 활동에서 더욱 강력하게 나타난다. 설문결과, 이들이 가장 희망하는 활동 중 중복선택 결과 1순위가 문화예술 체험 활동(54.2%)으로 미술, 음악 공연 등을 선택하였고, 2순위 또한 목공예, 자수 등의 문화예술 관련 체험 프로그램(36.9%)로 순위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파주시 청소년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게임(17%), 스마트기기로 놀기(16%), 공부(16%) 등으로 채워지는 것으로 답하였으며, 온라인 활동의 경우 또한 체험활동이 아닌 대부분이 유튜브와 SNS 활동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파주시만의 청소년들뿐만이 아닌 전국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삶을 반영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위의 설문조사를 통해 도출할 수 있는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현재와 미래과제는 어찌 보면 명백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문화예술 활동과 체험을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단, 여기에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고려할 사항이 존재하는데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활동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한 곳에만 쏠려있는 파주시 청소년 관련 시설의 물리적, 지리적 편향성에 대한 극복, 그리고 파주시만의 지역 정체성이 녹여진 문화예술 교육과 활동에 대한 정립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 3.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의 주요 사례들

#### 1) 국내 사례: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전용공간 ‘꿈꾸는 예술터’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지역 중심의 창·융복합 문화예술교육 기반의 초석으로 마련하기 위한 전용 시설 구축 사업으로 2017년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포함되어 적극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이 사업은 「문화비전2030」 및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2018-2022)」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 정책 사업으로 생활 SOC(생활 사회간접자본) 3개년 사업(2020~2022)과 연계되어 2018년 시범사업으로 전주와 성남 2개 지역이 선정되어 시행 중에 있다.

‘꿈꾸는 예술터’는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직접적인 체험형 교육 활동의 기반이자 공간거점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문화예술교육센터(꿈꾸는 예술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의 어린이·청소년 및 주민들이 주인이 되어 예술가와 함께 예술로 상상하고 표현하는 예술놀이와 창작활동을 통해 늘 새롭게 변화하는 미적 공간과 문화적 경험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체험교육의 장<sup>3)</sup>” 이

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사업의 목적은 첫째, 특화된 문화예술교육공간 조성으로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둘째, 지역 특성 및 수요에 기반을 둔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 예술 감수성 향상 및 창의적 인재 양성 도모, 지역주민의 문화 역량 강화로 요약될 수 있다.<sup>4)</sup>

[표 1] 지역 문화예술교육 거점 공간의 플랫폼으로서 역할

주체	구분	역할
이용자	체험 플랫폼	자유롭고 주도적인 예술놀이와 창작 경험을 통해 다양한 미적·예술적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
예술가	R&D 플랫폼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창·제작을 위한 연구와 실험, 실연, 실행의 공간
지역자원	네트워크 플랫폼	문화예술 자원과의 연계 및 협력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교류와 유통의 기반을 제공하는 거점 공간

전주는 2019년 11월, 전주 팔복예술공장이 꿈꾸는 예술터 1호로 첫 개관하였고, 성남의 꿈꾸는 예술터는 2020년 12월 온라인으로 개관했다. 전북 전주시는 전주산업단지 내 폐공장 활용 모델로, 기존에 조성된 예술창작공간인 팔복예술공장과 연계해 폐공장 1개 동을 예술교육공간으로 재단장하고, 이곳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창작과 놀이 중심의 융·복합 예술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그림3〉 전주 꿈꾸는예술터 팔복예술공장 사진<sup>5)</sup>

3) 김혁진 외(2018), 「문화예술교육센터 조성 및 운영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8), 「유휴공간 활용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사업 " 꿈꾸는 예술터" 평가지표 개발연구」,

5) 팔복예술공장 홈페이지, <https://www.palbokart.kr/main/inner.php?sMenu=A1600> (검색일 7월 24일)

경기도 성남시는 성남교육지원청과 협약을 체결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라 폐교 예정인 (구)영성여자중학교 건물을 재단장(리모델링)해 성남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하고, 이곳에서 상주 예술강사(예술가)를 두어 프로그램을 기획·개발·운영하는 모델이다. 2020년 선정된 부산 북구, 강원 강릉, 충북 청주, 전북 장수, 경남 밀양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8개 도시를 추가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파주시 또한 꿈꾸는 예술터의 모델을 참고하여 지역의 상주 예술가와 협업체계를 꾸려 파주만의 문화자원을 통해 청소년들이 만들어 가는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사례 중 하나로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거점 공간의 역할은 청소년의 자발적 활동을 실현할 교육 공간 마련과 이들의 욕구를 건설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이들의 단순 여가활동이나 문화시설의 부수적 기능이 아닌 독립 영역으로써 정체성 확립이 요구된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은 예술 장르의 확장과 교육 방법의 다양화, 예술가의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예술 참여자의 확장을 중심으로 자리매김하였다.

전주의 경우, 팔복예술공장은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예술을 하는 곳으로써 ‘창작, 실험, 놀이, 교육, 커뮤니티’의 기능이 작동되는 곳으로 정체성을 확립했다. 팔복예술공장에서는 예술가들이 지속해서 예술활동을 유지하면서 예술적 사고를 전달할 수 있는 몇 가지 실험적 작업을 해오고 있다. 우선,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생각을 교류하기 위해 지역 외 작가도 선발하여 예술교육을 위한 ‘창작예술학교’가 만들어졌다. 이러한 시스템은 살아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핵심이기도 하다. 예술가가 현장에서 작업하고 전시와 퍼포먼스를 통해 자기를 표현하는 것을 목격하는 일은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예술 경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입주 작가가 직접 예술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시스템은 팔복예술공장의 주요한 예술교육 체제 중 하나이다. 이곳에서는 학습자 중심(10인 이내로 구성), 과정 중심으로 참여자의 생각과 표현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는 5×2(개인 5회 2시간), 중학교는 8×2(1인 8회 2시간)로 기본 프로그램에 인문학과 사회학이 더해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성남의 꿈꾸는 예술터는 창의적 사고를 위한 활동, 문화예술 향유를 통한 감성의 성장, 유기적 융복합교육, 교사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하여 대상·활동·협업 중심의 공간을 주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특히 상주 예술가 및 예술 강사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 및 확산, 지역 학생들에게 폭넓은 문화예술 경험과 소통·공감 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학교·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 전용 공간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이 부족한 성남시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 아동·청소년 및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공간으로 성남 지역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지식’, ‘정보’, ‘프로그램 개발’의 발전소로 자리매김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아 놀이실, 소리 스튜디오, 라운지와 카페 등으로 구성된 성남 꿈꾸는 예술터에서 가장 특징적인 공간은 다양한 ‘랩(Lab)’ 즉 실험공간이다. 문화예술교육 랩은 공간과 인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미디어, 손기술, 소리, 움직임, 이미지, 통합 랩 등이 운영되고 있다. 이곳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념 정립과 확산, 지역과 학습자 이해를 기반으로 한 문제의식의 제기, 문화예술을 비롯해 다양한 영역 간의 협업을 실험한다. 이때 랩 공간의 주체이자 창의적 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예술교육 인력은 지역의 예술가들로 청소년과의 주요한 협업 주체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성남 꿈꾸는 예술터는 전임 강사제를 두고 예술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교육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 2) 국외 사례: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

다양한 해외 사례의 소개와 국내 상황에 접목하는 지속적 변화 속에서 철학과 담론 역시 문화예술교육 발전의 동력이 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이 출현한 이래 문화예술교육의 주요 가치는 융·복합적 접근, 지역의 발전(지역화),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네트워크 구성과 협업, 문화예술교육의 플랫폼 구성 등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꿈꾸는예술터는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와 벨기에의 ABC센터 (Art Basics for Children)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핀란드는 교육이념과 정책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문화예술의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해주고자, 시나 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센터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운영하고 있다. 핀란드 전역에는 800여 개의 문화예술교육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핀란드는 아동과 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을 위해 알려진 램프라 불리는 타이카람푸(Taikalamppu)를 통해 지역 예술센터를 네트워킹하고 있다.<sup>6)</sup> 타이카람푸(Taikalamppu)에는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Centre)를 비롯해 핀란드 전 지역의 11개 아트센터가 속해 있으며 이 아트센터들은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예술교육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sup>7)</sup>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는 헬싱키에서 운영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기관이다. 가장 유명한 <5×2> 교육프로그램으로 헬싱키에 사는 7~12세 아이들에게 예술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진지한 예술 경험이 바로 예술교육이며, 예술교육은 실패 없는 배움을 경험하는 가장 훌륭한 교육이다.”를 모토로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자리한 ‘아난탈로 아트센터’(아트센터)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어린이·청소년 대상 예술교육 공간 모델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은 지 오래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경기

6) 타이카람푸 홈페이지 [www.taikalamppu.fi](http://www.taikalamppu.fi)

7) 콕덕주 외(2017), 『예술이 교육이다:유럽에서 만난 예술교육』

교육예술창작소'도 이 아트센터를 깊이 연구하고 벤치마킹한 결과다.



〈그림 4〉 핀란드의 아난탈로 아트센터(Annantalo Arts Centre) 8)

연구와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했던 사람들은 먼저 우리나라 예술대학의 전공 실기실 수준인 이곳의 고품질 공간, 기자재, 체험 재료 등을 보고 놀란다. 아트센터가 공간과 시설에 주목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환경에서 진지하게 예술 창작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철학 때문이다. 더하여 앞서 소개했듯이 이곳의 예술교육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실패 없는 성공을 경험하는 데 주요 목표를 둔다. 주요 프로그램은 학교 및 유치원용 아트 프로그램과 여가를 위한 가족 활동 프로그램으로 나뉜다. 주간에는 만 7~12세 초등학교 학급대상 〈5X2〉, 중고등학교와 계절 학기 〈컬처 코스 Culture Courses〉, 학교와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방과 후 예술활동 Arts as After-School-Activity〉, 유치원 아동을 위한 〈아트 어드벤처 Arts Adventures for Daycare〉 등이 있다.

〈5X2〉 과정은 6~10명의 소그룹 규모로 5주 동안 매주 2시간씩 센터에서 진행되지만, 때에 따라서 예술교사(Art Teacher)가 학교로 찾아가기도 한다. 여기서 파주시의 경우도 청소년재단에서 물리적, 거리적 한계를 느끼는 청소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프로그램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의 특징은 활동시간을 여유롭고 자유롭게 잡아 아이들이 예술을 즐겁게 받아들일도록 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핀란드의 문화 코디네이터 시스템이다. 부모님을 포함한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학교와 아난탈로 아트센터를 연결하여 더 많은 청소년들이 예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3) 국외 사례: 미국의 아트 플러스 필름 랩: LACMA9 ART + FILM LAB<sup>9)</sup>

LACMA9 ART+FILM LAB은 영화의 제작부터 상영까지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예술교육 참여프로그램으로 이동식 스튜디오를 통하여 로스앤젤레스와 샌 버너디노(San Bernardino)에 위치하고 있는 9개의 문화소의 지역을 직접 이동하며 운영되고 있다. 이 이동식

방문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영화제작 워크숍, 참여자 개개인의 이야기와 추억들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구술역사프로젝트(Oral History Project), 무료영화관람 및 LACMA 무료관람의 4가지 세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문화소외지역에 문화체험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기존의 수동적인 관람패턴을 벗어나 직접적이고 활동적인 살아있는 예술체험 중심의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더하여 니콜 밀러(Nicole Miller)와 호르세 파르도(Jorge Pardo) 같은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공동작업을 통하여 LACMA9 ART+FILM LAB은 예술성과 영화를 접목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향해 온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또한, 쿠바 출신의 설치예술가인 호르세 파르도(Jorge Pardo)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되고 있는 이동식 스튜디오를 디자인하여,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과 협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협력의 결과물을 직접 보여주는 노력을 해왔다. LACMA9 ART+FILM LAB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평소 경험하지 못하는 문화예술참여기회를 제공으로써 현지 주민들에게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으며, 특히 무료영화상영 프로그램은 지방 정부 기관인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여가 및 공원관리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역사회 주민들 간의 소통과 화합의 장이 되고 있다.

LACMA9 ART+FILM LAB 프로그램은 기다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아닌 찾아가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그 첫 번째 의의가 있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수동적인 형태의 문화예술 관람을 지양하고 워크숍과 영상제작 등의 기회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방식으로 문화예술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영상/영화제작에 필요한 모든 장비가 갖추어진 이동식 스튜디오의 설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상대적 문화소의 지역 9곳을 선정하고,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보존 및 발전시키며,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공유,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참여기회를 확대시켰다는 것에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LACMA9 ART+FILM LAB에 선정된 9개 지역은 빈곤지역으로 동양계, 라틴계, 히스패닉계, 흑인계가 밀집하여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동식 스튜디오를 지역주민들과 청소년을 포함한 대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각 지역에 대표적인 공원에 설치함으로써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접근효율성을 극대화시킨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앞서 아난탈로의 사례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파주시 청소년재단이 고려해야 할 물리적 제약에 대한 전략선택으로 참고할 주요 사항이라고 판단된다.

8) 아난탈로 아트센터 홈페이지, <http://www.annantalo.fi/en/about>

9) 홈페이지: <http://www.lacma.org/>



〈그림 5〉 LACMA9 ART+FILM LAB 이동식 스튜디오

#### 4. 나가며

전시나 공연, 전통의 계승과 전수를 위한 교육이나 복지 공간이 아닌 창의적 교육과 체험 활동을 목표로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는 청소년 전용 공간의 구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공교육의 학교를 비롯해 문화기반시설(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예술회관, 문화원, 문화의집)과 사회복지시설(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사회종합복지관, 보육시설)을 비롯해 작가 스튜디오, 작업실, 연습실, 교육실과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기획자, 강사, 연구자)의 작업 공간이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되어 왔다. 이외에도 창의예술교육센터, 창의예술창작소 등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예술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세상에 똑같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은 없다. 한국과 핀란드, 미국이 다르듯 타 도시와 파주도 다르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발전과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기획자들은 타 도시의 사례를 연구하며 해답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상상력으로 이에 대한 각자의 해답을 파주 현장에서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앞서 제시된 논의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마음껏 체험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다양한 활동과 통합적 경험의 제공을 목표로 운영될 사명이 있다.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파주시 청소년들은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활동을 원하지만, 실제 이들의 삶에서는 그러한 욕구가 충분히

해소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의 희망을 동력으로 재단은 파주시 청소년들의 문화 예술적 잠재력을 발견하고 문화 감수성의 성장을 실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체성을 확립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재단의 공간이 청소년들이 문화와 예술로 자신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탐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제해결을 위해 상상하고 활동하는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재단은 청소년들 스스로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이웃과 지역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새로운 문화공동체를 이루는 활동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정교한 재단의 운영 체계 마련이 선행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둘째,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직접적인 체험형 교육 활동의 기반이자 청소년 자치의 거점으로서 성격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파주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들이 특정 부분 자신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반시설로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수행하는 독립적 조직체로 성격이 정립되어야 한다. 재단의 정책 방향과 전략은 청소년들의 의지와 선택, 그리고 책임을 통해 공간 조성고 고유한 정체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이 원하는 문화예술활동을 단순히 제공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예술가와 교육자, 그리고 청소년들이 함께 거버넌스를 이루어 논의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체험형 교육과 활동의 기반이 형성되길 바란다.

셋째, 문화예술교육은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동시대성을 기반으로 한 예술 경험에 집중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그렇게 될 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오늘, 여기, 나’를 중심으로 한 주도성과 현장성 기반의 즉흥적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위한 감각적, 놀이적 요소를 포함한 다양한 활동은 새로운 공유의 기회로 작용한다. 창의적이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예술의 본질을 이해하고 이를 교육의 과정으로 조성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대한 근본적이고 활발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것은 현재의 한계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것이다.

미래사회는 문화예술이 중심이 될 것이며 문화예술교육은 감성뿐 아니라 정서, 사회성, 신체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확대되고 있다. 또한, 생애 주기적 관점에서 볼 때, 청소년기의 문화예술교육 경험은 성인기의 문화예술 향유와 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다고 하겠다. 여기에는 미적인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매체교육과 문화적 문해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각각의 요소는 인간의 성숙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능력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하면서 청소년의 발달을 끌어내고 있다. 즉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인격적으로 성숙하며 미적 능력과 창의적 능력, 더 나아가 소통능력을 발전시켜 한 사람의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다. 이러한 담론의 실천을 이끌어 가는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멋진 미래와 도약을 열렬히 기원하는 바이다.

MEMO

MEMO



##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 This image shows a single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blue or grey ruling lines.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There is no handwriting or other markings on the paper.

2021 파주시 청소년정책 전문가 포럼

# 청소년이 살고 싶은 파주 만들기

---

발행일 2021년 10월  
발행인 박준규  
발행처 파주시청소년재단  
연락처 031-540-5200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시민회관길 40  
홈페이지 [www.pcy.or.kr](http://www.pcy.or.kr)

---

디자인·인쇄 디자인 땡큐 070-8800-7495

---